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유재길

이인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양미경

2006년 12월 29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2월 29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양 미 경



양미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추천함

2006년 12월 29일

지도교수 유 재 길
이 인 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양미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국문초록

미술관 제도는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지배계층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예술품은 근대미술관의 시초인 루브르미술관(Louvre Museum)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문화재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어 ‘공공의 문화적 재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보의 상호 소통 및 지역 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폼피두센터(Centre Pompidou)가 출현함으로써 미술관을 당대 문화요소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었다. 소장품의 예배적 권위에서 벗어나 문화요소의 일부로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기까지에는 문화의 민주주의 이념과 매스 미디어의 발달, 문화수요 인구 및 여가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들은 미술관의 물리적 확장을 요구하며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술관 건립 계획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미술관 건립 계획수립 시, 지역의 문화역사·환경·지정학적 측면의 특수성 안에 미술관 제도의 과거와 현재의 동향은 물론 미래의 변화를 어떻게 교차하며 건립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을 시작으로 건립의 중요성과 프로젝트로서의 전문성을 제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II장에서는 미술관 건립 기획 연구의 이론적 전제로서 미술관 제도의 성립과 과정 및 의미변화와 연구과제로서의 미술관 건립을 고찰하는 한편, 전통적 미술관 개념에 근거한 기존 뮤지올로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뉴뮤지올로지(New Museology)의 관점에서 미술관 건립 패러다임의 현대적 양상을 연구하였다. 또한 뮤지엄 기획자인 게일 로드(Gail Dexter Lord)와 베리 로드(Barry Lord)가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따라 프로젝트로서의 미술관 건립의 제 문제 및 계획수립과 실행의 과정을 연구하였다. III장

에서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경과 분석으로서, 미술관 건립 동기와 배경 및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전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미술관 건립의 기대효과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미술관 성격, 입지분석 및 선정, 소장품, BTL제도로 분석하였다. IV장에서는 유사사례 분석으로 제주도와 섬이라는 지정학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일본의 나오시마현대미술관(Naoshima Contemporary Art Museum), 제주도와 건립방식이 유사한 가나가와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Kamakura and Hayama), 국내 사례로서 경남·전북도립미술관과 최근에 개관한 경기도미술관 건립 사례 비교를 통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의 특수성을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토대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전문화이다.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체계가 결여되어 다양한 포럼을 통해 존립 근거를 찾는 의미론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그 중 미술관 성격은 규모와 시설, 예산, 조직, 전시, 프로그램, 건축, 공간 등 운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본 틀이 되므로 건립 계획수립 시, 성격 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입지접근 방식은 일상의 접근성과 자연의 접근성을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는 점, 또한 새 부지와 역사성이 있는 건물을 개축하여 건립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소장품에 있어서는 미술관 설립 법 규정으로 인해 성격마련 이전에 무리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소장품 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BTL(Build-Transfer-Lease)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 기능의 확대이다. 이 제도는 공공문화시설에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도입함으로써 세련된 서비스 기능을 갖추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BTL제도에 대한 의미와 가능성, 한계를 분석하기 전에 무리하게 추진되어 규모 있는 전시기획과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자칫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술관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와 BTL제도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특성화된 건축 공간 구성이다. 미술관은 하나의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간의 확장이 요구되므로 각 기능들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발견의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위주 공간의 실현과 향후 미술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 증축 및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이 되어야 한다.

넷째, 개관 기획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전문인력 중심의 개관 준비팀을 구성하고, 개관전(展)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개관전(展) 기획 실행의 적정일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작으로 각 문헌·자료의 연구와 실행을 통해 건립의 중요성과 프로젝트로서의 건립의 전문성을 제안하였다. 즉, 지역의 좋은 미술관은 하루아침에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건립계획 초기부터 프로젝트로서 인식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시작과 완성, 다시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미술관 문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3. 연구의 중요성	4
4. 연구의 한계	6
II. 미술관 건립 기획 연구의 이론적 전제	8
1. 미술관 제도와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	8
(1) 미술관 제도의 성립과 전개	8
(2) 미술관 제도의 의미변화	11
(3) 연구과제로서의 미술관 건립 기획	14
2. 미술관 건립 패러다임의 현대적 양상	17
(1) 평생교육 기능의 강화	20
(2)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확대	22
(3)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다변화	24
3. 프로젝트로서의 미술관 건립 기획과 실행	27
(1) 미술관 건립의 제 문제	27
(2) 미술관 건립 계획수립	30
(3) 미술관 건립 계획실행	31
III.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경과 분석	37
1. 미술관 건립 동기와 배경	37
(1)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37
(2) 지역작가 창작기회 및 도민 문화향수권 확대	38
(3) 지역 간 미술교류의 활성화	39
2. 미술관 건립 추진 경과	40



(1) 미술관 건립 계획수립	40
(2)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안 개요	43
3. 미술관 건립 추진 경과 분석	48
(1)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의 기대 효과	48
(2)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52
IV. 유사사례 분석	67
1. 지정학적 측면	67
2. 건립방식 측면	70
3. 건립주체 측면	75
4.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계획과 유사사례 비교	85
V.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의 개선 방안	89
1.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전문화	89
2. BTL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 기능의 확대	92
3. 특성화된 건축 공간 구성	94
(1) 공간 기능의 유연성 확보	95
(2) 체험 위주의 공간 실현	99
(3) 자연친화적 공간 마련	101
(4) 증축 및 확장 가능성 고려	102
4. 개관 기획을 위한 계획 수립	104
(1) 전문인력 중심의 개관 준비팀 구성	104
(2) 개관전(展) 기획 실행의 적정 일정 확보	105
VI. 결 론	108
참고문헌	112
Abstract	117

표목차

<표 1>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다변화	26
<표 2> 소장품에 관한 지침	35
<표 3> 제주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2006년)	39
<표 4>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 개요	45
<표 5> 도입시설 규모 산정	45
<표 6> 제주도립미술관 조직(안)	47
<표 7> 제주도립미술관 업무분장 계획(안)	47
<표 8>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	52
<표 9> 입지분석 형태(1)	55
<표 10> 입지분석 형태(2)	56
<표 11> 미술관 입지선정 기준	58
<표 12> 국·공립미술관 상설전시 현황(2005년)	60
<표 13> 작품 기증 시 고려 사항	63
<표 14> 문화관광부 2005년 BTL 대상 사업	64
<표 15> BTL사업으로 선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64
<표 16> BTL사업의 민간참여 체계	66
<표 17> 나오시마현대미술관 시설 개요	67
<표 18>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시설 개요	71
<표 19> 경남도립미술관 시설 개요	76
<표 20> 2004년 경남도립미술관 개관기념전 내용	78
<표 21> 전북도립미술관 시설 개요	79
<표 22> 전북도립미술관 개관기념전 내용	82
<표 23> 경기도미술관 시설 개요	83
<표 24> 경기도미술관 개관기념전 내용	85
<표 25> 미술관건립 체계의 전문화 과정	91
<표 26> 제주도립미술관 시설 개요	96

그림목차

<그림 1, 2> 나오시마현대미술관	67
<그림 3, 4>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71
<그림 5> 경남도립미술관	75
<그림 6> 카페테리아	78
<그림 7> 도서자료실	78
<그림 8, 9> 전북도립미술관	79
<그림 10> 어린이 실습실 입구	81
<그림 11> 야외 공간	81
<그림 12, 13> 경기도미술관	83
<그림 14, 15> 경기도미술관 내부	85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제주도¹⁾는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제대로 된 공립미술관을 건립하는 목적은 문화 소외지역에서 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의 시발점은 1998년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국민의 정부 새 문화관광정책에 ‘1도 1미술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정부의 문화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교육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수업 시행,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가시간에 문화·예술을 즐기려는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기반 시설 중 지역의 상징이며 지역 문화·예술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문화정책 변화와 사회적 요구로 각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필요하나 미술관 건립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투입되므로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계획수립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배경은 연구자가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있다. 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부터 연구를 시작하였으므로 변경 이전의 명칭을 그대로 씀을 밝혀둔다.

첫째, 미술관 건립 계획단계에서 건립 주체의 미술관 건립 의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미술관 건립인가’라는 건립 존재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지리적으로 특수한 섬에 건립되므로 지정학적, 환경적 특수성과 미술관 제도의 과거·현재·미래를 어떻게 교차시키며 특수성을 드러낼 것인가라는 미술관 성격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세 번째, ‘미술관을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인가’ 하는 입지 분석은 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입지분석 및 선정과정에서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네 번째,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현대미술관으로서 건립 후 어떠한 소장품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미술관의 성격을 나타내므로 소장품정책마련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미술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전에 다수의 작품을 기증받은 것이 문제였다.

다섯 번째,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BTL제도(Build-Transfer-Lease, 민간자본 유치사업)²⁾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BTL제도에 대한 의미와 가능성,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통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건립 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2)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이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를 시작으로 미술관 건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포함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에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현재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이 완성된 사업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 있으므로 건립 계획 논의의 시작으로부터 BTL제도로 선정된 후 시설개요가 나온 시점까지로 정한다.

I 장,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목적인 서론을 시작으로 II장에서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도출시키기 위한 이론적 전제로서 미술관 제도의 성립과 전개 및 의미변화와 연구과제로서의 미술관 건립을 살펴보고, 뉴뮤지올로지(New Museology)의 관점에서 최근 미술관 건립 패러다임의 현대적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뮤지엄 기획자인 게일 로드(Gail Dexter Lord)와 베리 로드(Barry Lord)가 편집한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로서의 미술관 건립 기획과 실행의 과정을 고찰한다. 그리고 JMMC(Jean-Marie Mariotti Center, Butterworth)에서 출간하는 저널, 「뮤지엄 경영과 큐레이터십(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³⁾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최근 미술관 문화의 동향과 건립의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III장에서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경과 분석을 고찰하는 부분으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동기와 배경을 시작으로 추진경과와 가능성 및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IV장에서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유사한 사례를 지정학적, 건립방

3)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은 뮤지엄의 전문직, 철학자, 학생, 교육자, 컨설턴트를 위한 국제저널로 깊이 있는 현재 이슈와 뮤지엄 실천상의 발전에 대한 가장 최근의 조사, 분석, 논평을 제공하여 현재 이슈를 고찰하고 있다. 주성은, 「현대 뮤지엄 이론 연구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개념을 중심으로-」(홍익대 대학원, 2006), p.4.

식, 건립주체 측면에 따라 분석한다. 제주도와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나 오시마현대미술관(Naoshima Contemporary Art Museum)의 건립사례를 통해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최근 미술관 건립 동향을 어떻게 미술관에 적용시켰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BTL제도로 건립된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The Museum of Art Kamakura and Hayama)의 사례를 통해 BTL제도의 의미와 가능성 및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건립주체 측면으로 경남·전북도립미술관과 최근에 개관한 경기도미술관 건립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의 도립미술관으로서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어떠한 연구과 실천을 통해 건립되었는지 알아본다.

V장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 번째,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전문화와 두 번째, BTL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 기능의 확대, 세 번째, 특성화된 건축 공간 구성과 네 번째, 개관 기획을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박물관학 서적과 최근 미술관 건립 패러다임의 현대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단행본, 미술관 건립에 관한 국내외 주요 논문, BTL제도의 의미와 성공사례 분석 및 국내외 미술관 답사 등을 통해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중요성

지역문화를 드러낼 각 지역의 도립미술관 건립은 앞으로 더 가속화되리라 본다. 그만큼 미술관 건립은 지역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예술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미 각국의 미술관 건립은 이미 콘텐츠뿐만 아니라 외부의 건축물까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식하여 세계적인 관광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되살리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 각국의 미술관 건립 사례를 보면 건립 계획 수립에 있어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문화요소의 일부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큐브의 미술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관람자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로서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건립 배경에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미술관 제도의 성립과 전개 및 미술관 제도의 의미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미술관 건립 계획수립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와 포괄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현재 우리나라도 제주도립미술관 건립뿐만 아니라 800억 원에 달하는 총사업비의 대구시립미술관이 건립 중에 있으며 얼마 전에 경기도미술관이 오랜 추진과정 끝에 개관하였고 앞으로도 각 지자체들이 미술관 건립을 계획 중에 있다. 이는 그만큼 문화의 중요성과 함께 문화를 전면에 내세워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지역에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방식으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술관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없다.

최근 미술관 건립 패러다임의 현대적 양상을 뉴뮤지올로지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소장품의 중요성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 위치해 있는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나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벨레뷰 미술관(Bellevue Art Museum)사례와 같이 미술관의 핵심인 소장품 없이도 건립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은 미술관 안에 최상의 서비스 시설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까지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정치·경제의 변화와 함께 미술관 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선 -기존의

미술관 성격과 소장품, 조직, 전시, 건축의 접근 방식이 다르므로- 지역의 문화적, 지정학적, 환경적 특수성과 함께 현실적 여건을 어떻게 교차할 것인가를 다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의 문제점을 시작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인식시키고자 함이다.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연구자가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건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 배경의 타당성과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시의성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에 관한 연구는 이미 완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과정에 있으며, 향후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라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 또한 중요할 수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사례를 도입시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에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IV장의 유사사례 분석에 있어서도 섬이란 지리적 특수성에 국한시켜 나오시마 현대미술관 건립 사례만 제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제주도와 섬이란 지정학적 특수성은 있으나 지역주민의 일상의 접근성에 가치를 두어 건립한 유사사례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건립방식 측면의 유사사례로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사례만 제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건립방식 측면이 유사한 사례는 미술관보다 도서관, 학교,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

아 미술관 사례를 찾는데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미술관 건립 사례를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제한적인 선택을 통해 접근한 것이므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BTL제도로 건립하고 있는 시범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BTL로 건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범사례가 없는 상황⁴⁾이므로 건립 후 미술관이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될 것인가를 예단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제도로 건립된 일본의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건립 사례를 조사하였으나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지역의 문화적 토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행정과 예산이 다를 수 있으므로 BTL로 건립된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의 성공 사례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과정에서 미술관 성격을 충분히 구체화시키지 못한 점, 입지분석 및 선정과정과 소장품에 관한 사항, 그리고 BTL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어 건립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좀더 사회·문화·정치·경제적 배경으로 폭넓게 연구하지 못한 점을 밝혀둔다. 따라서 그 외 미술관 조직, 전시, 예산, 교육, 마케팅 등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차후 미술관 문화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4) 현재 대구시립미술관 건립이 BTL제도로 추진하고 있다.

II. 미술관 건립 기획 연구의 이론적 전제

1. 미술관 제도와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

(1) 미술관 제도의 성립과 전개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 건립의 붐이 일고 있다. 그에 발맞춰 미술관 문화도 과거와 달리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장품 없이도 미술관이 건립되는가 하면 미술관의 체인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은 미술관 건립의 중요한 근거인 소장품을 한 곳에 소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장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술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전시와 소장공간에 중점을 두었던 미술관은 관람자를 위한 서비스 기능의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증개축 및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술관이 과거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과 현대미술의 ‘현장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술관 제도가 대중과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만들어 간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서 단토(Arthur C. Danto)는 “대중이 미술관을 가는 게 아니라 미술관으로 하여금 대중에게로 가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비기념물들을 두어서 대중이 이에 대해 미술관 내의 작품들에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미적으로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처하고자 했다.⁵⁾ 이처럼 소장품의 절대적 가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건립되었던 과거의

5) Arthur C. Danto 지음, 이성훈·김광우 옮김, 『예술의 종말 이후』 (서울: 미술문화, 2004), p.332.

미술관이 오늘날 문화요소의 일부로 인식되기까지 미술관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세계 최초의 미술관이라 일컬어지는 Museion은, 3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것으로⁶⁾, 이 미술관을 Museion이라 불렀던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문예, 미술의 뮤즈에게 바치는 신전으로서, 문예·미술·철학을 연구하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 최초의 미술관은 설립 당시 소장품을 갖추긴 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학술 교육기관이나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 후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박물관⁷⁾은 종래의 학자나 예술가 등 특정 계층을 위한 학술 연구 기관에서 대중에게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모했다. 프랑스는 18세기 후반에 국민회의의 결의에 따라 루브르 궁의 용도를 변경하여 국립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Louvre Museum)을 설립했다. 루브르 박물관은 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일반대중에게 개방했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박물관 전체가 공개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공공박물관의 기능을 수행⁸⁾하게 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미술관은 기존 폐쇄성을 타파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교육에 봉사해야 한다는 새로운 미술관 문화를 만들었다. 이것은 미술관의 기능에 있어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미술관은 특정계층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6)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프톨레맥뮤지엄은 도서관의 기능과 연결되어 컬렉션들을 연구하는 지식의 보유고로서 기능하였다. 이곳은 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역사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7) 본 연구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에 관한 연구이므로 용어 사용에 있어 뮤지엄, 박물관을 모두 미술관으로 칭한다. 그러나 인용글 안에 뮤지엄, 박물관으로 된 경우에는 인용 글의 용어를 그대로 씀을 밝혀둔다.

8) 게리 에드슨데이비드 던 지음, 위의 책, 『21세기 박물관 경영』 (서울: 시공사, 2001), pp.18~19.



그러나 식민지 정책⁹⁾은 유럽 뮤지엄 발전의 가장 중요한 미술품을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대량의 수집품은 자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정책에 동조하게 하는 정치적 목적을¹⁰⁾가지게 되었다.

루브르박물관의 개관과 나폴레옹에 의한 민족의식의 촉발, 시민혁명의 전 유럽적 확산 등에 영향 받아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미술관이야말로 민족과 국가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최상의 길이며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의식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공기관이란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정신 아래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립미술관 건립 계획에 착수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필연적인 것이었다.¹¹⁾

서구 유럽에 비해 시기적으로 다소 늦게 출현한 미국의 미술관은 유럽의 미술관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첫째, 유럽의 경우는 개인 소장품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기증되면서 국가의 지원과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 박물관이 설립되었으나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박물관을 설립하기보다 경제적 부흥과 산업화의 성공에 따라 등장한 신흥 자본 계층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박물관 설립을

9) 박물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예술’을 범인류적인 현상으로 간주한 문화식민지화 일 것이다. 근대 유럽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강제력 있는 발명품 중의 하나로서의 예술은 인류역사를 재 기술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19세기 인종주의자, 문화사가, 민족주의자 등은 개인 혹은 그룹의 성향, 인식능력, 도덕, 기술, 철학, 문명화에 있어서의 진보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예술을 이용하였다. Dimaggio, Paul J,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Museums, Encyclopedia of Aesthetics, Vol. 3,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305~308.

10) 18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계속된 제국주의적인 식민지정책은 미술품을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식민지 문화재 발굴과 수집은 뮤지엄을 대형화시켰으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독일의 베를린국립박물관, 영국의 대영박물관이 건립되었다. 김형숙, 『미술, 전시, 미술관 Arts, Exhibitions, Museums』 (서울: 예경, 2001), p.18.

11) 이인범, 『미술관 제도 연구』 (서울: 범신사, 1998), p.36.

유도했다. 두 번째, 미국은 설립 초기부터 일반 대중에게 봉사한다는 설립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유럽과는 달리 소장품의 증가와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했다. 따라서 미국의 초기 박물관들은 형성 초기부터 대중을 위한 사회교육 기관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들 박물관들은 내면적으로는 지배 계층의 편익과 이상을 추구하고 사회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을 피지배 계층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새로운 시민의 지적·정신적·윤리적 함양, 민주주의의 정착,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미국 사회의 기본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¹²⁾

(2) 미술관 제도의 의미변화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박물관 같은’이라는 의미의 독일어 단어 ‘museal’은 유쾌하지 못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단어는 평가(評者)와 더 이상 생명력 있는(vital) 관계에 놓여 있지 않고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물을 말하며 이 사물들은 현재의 필요성보다 역사적 관련성에 힘입어 유지된다고 하면서, 박물관(museum)과 영묘(mausoleum)는 음성학상의 관계 이상의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박물관들은 ‘예술 작품의 가족묘’라고 표현하였다.¹³⁾ 결국 “‘박물관의(museal) 필멸성(必滅性)’은 그 자체의 문화적 모순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제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따라서 문화적 모순 속에 놓인 모

12) 조엘 오로즈(Joel Orosz)에 의하면, 1870년 이전의 미국박물관들은 유럽의 박물관 문화를 답습하면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진 박물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 1870년 이전까지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느 특정 시기에는 교육이, 그 다음 시기에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미국 박물관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기는 힘들었으나, 1870년에 이르러 ‘미국형 절충주의(American Compromise)’라 일컬어지는 ‘전문성’과 ‘대중교육’의 상호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유명 박물관 설립은 시민의 계몽을 명백한 목적으로 한 것이긴 하나 현대에도 박물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의 법적 근거는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있다. 이보아,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서울: 역사넷, 2003), pp.13~14.

13) 자크 라캉 외, 윤난지 엮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서울: 눈빛, 2000), p.271.



든 대상으로 확대된다”¹⁴⁾고 하였다.

아도르노의 관점과 같이 전통적 미술관의 권위가 도전받게 된 배경에는 미술관의 역동성, 창의성 및 미래지향적 태도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과거성, 폐쇄성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작품이 미술관으로 옮겨지는 순간 예술의 본래성이 상실된다는 점인데, 이는 삶과 예술의 불일치로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은 단지 예배적, 숭배적 가치일 뿐이라는 점이다.

결국 미술관 스스로의 역할과 기능에 의문을 던지며 근본적인 지위에 대해 재규정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에 의하면, 미술관의 심각한 문제는 “계급적 제도라는 것, 부르주아 문화, 앵글로색슨 사람들이 ‘High Culture’라고 부르는 문화의 재생산의 도구라는 생각을 일반화하는 데 공헌하며, 차후로 박물관은 부적응의 제도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확산과 민주화의 문화 프로젝트를 부양하려는,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제도로 나타날 것”¹⁵⁾이라고 하여 기존의 미술관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또한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예술발전 경향에 관한 테제는 일련의 전통적 개념들, 이를테면, 창조성, 천재성, 영원한 가치와 비밀 등을 제거해 버리며, 이러한 전통적 개념들은, 만약 그것이 아무런 통제 없이 주어지는 실증적 자료의 검토를 위해서만 이용된다면 과시증적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¹⁶⁾는 점과 함께 “복제품의 대량생산과 복제품의 현재화는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것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이러한 위기와 변혁은 오늘날의

14) 자크 라캉 외, 윤난지 역, 위의 책, p.272.

15) 세계박물관협회(ICOM)편·하태환 옮김, 『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경영』(서울: 궁리, 2001), pp.365~366.

16)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서울: 민음사, 1983), p.198. 발터 벤야민은 사진의 발명이 미술의 숭배적 가치에서 전시가치로 미술의 성격을 변화시켰다고 하였다. 사진의 출현은 문화와 예술적 생산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대중운동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¹⁷⁾라고 하여 미술관제도의 변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발터 벤야민의 생각은 앙드레 말로에 의해 발전되었다. 앙드레 말로는 『침묵의 소리 (Les Voix du silence)』에서 ‘벽 없는 미술관’론을 제시하였다. 앙드레 말로에 의하면 “미술관은 미술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수많은 미술복제품들이 ‘상상의 미술관’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상상적 미술관은 모든 시대의 미술과 모든 사람들의 미술을 사적 개인에게 유용한 것으로 만들면서 실제 미술관에 의해 유동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세워지게 된다.”¹⁸⁾ 라고 하였다.

결국 앙드레 말로의 상상의 박물관은 과거의 작품들이 초시간의 세계 속에 진입하는 곳이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박물관에 들어올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과거 작품들의 부활·변모·대면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상상의 박물관’이다.¹⁹⁾

상상의 박물관은 사진기술과 더불어 누구에게나 열린 새로운 공간으로서, 실제 박물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통해 미술관을 문화요소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보게 되고 새로운 ‘뮤지올로지(Museology)’가 등장하게 된다.

전통적 뮤지올로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뉴뮤지올로지’를 주창한 피터 버고(Peter Vergo)는 “전통적 뮤지올로지가 실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뮤지엄을 ‘살아 있는 화석’으로 만들게 되는 점을 극복”²⁰⁾하고자 하였다. 실무적 접

17)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위의 책, p.202.

18) 존 워커 지음, 장선영 옮김, 『매스 미디어와 미술』(서울: 시각과 언어, 1998), p.114.

19) 앙드레 말로 지음, 김웅권 옮김, 『상상의 박물관』(서울: 동문선, 2004), p.299.

20) 김형숙, 『Museum and Communication 미술관과 소통』(서울: 예경, 2001), p.11. 참조.



근은 사회변화에 따른 미술관의 변모를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술관을 문화요소의 일부로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술관 제도의 의미변화에 따라 1960년대를 전후해 근대미술관의 재반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들이 시작되었다.²¹⁾

미술관 제도의 근본적인 물음과 비판, 그리고 의미변화는 역사·사회 및 문화적 조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미술관은 더 이상 연구, 보존,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교류와 소통의 장소²²⁾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관 제도의 의미변화들은 결국, 미술관 건립 계획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문화·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른 문화요소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고 연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3) 연구과제로서의 미술관 건립 기획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의 MoMA(근대미술관), LA의 게티 센터,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 베를린 유테인 뮤지엄, 밀워키 미술관, 휴스턴 미술관 신관 등은 신축이나 증개축을 통해 이미 건립 프로젝트를 마친 대표적인 미술관들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최근 수년간 기업미술관을 중심으로 신축 및 증축이 진행되어 서울시내 도심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로댕

21) 미국의 이웃박물관(neighbourhood museum),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일어난 통합 박물관(integral museum), 1980년대 이후로 신박물관학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소수집단 박물관(minority museum)운동과 스페인의 영토박물관(territory museum)운동, 캐나다의 유산박물관(heritage museum)운동, 1991년 이후로 브라질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공동체 박물관(community museum)운동은 새로운 박물관 운동의 대표적 기수들이다. 김영숙, 「에코뮤지엄(Ecomuseum)개념 도입을 통한 박물관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연구」(경희대 경영대학원, 2001), pp.35~36.

22) 문화유산과 당대 예술 활동의 혜택을 교육과 계층의 벽을 넘어 널리 확산시키고 문화의 창조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 같은 이념은 계몽주의 이래의 휴머니즘적 문화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성완경, 『민중미술 모더니즘 시각문화』(서울: 열화당, 1999), p.225.



갤러리, 최근에는 리움이 새로이 건립되었다.

미술관 신축이나 증축 붐²³⁾이 일고 있는 배경에는 기증품과 새로 구입되는 작품의 수용, 그리고 관람객의 증가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사회적 배경에는 문화의 민주주의 이념과 관광과 매스미디어의 발달, 문화수요 인구 및 여가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미술관이 그 지역사회에 다가가려는 노력과 활동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과거 미술관 종사자나 후원자들이 소수 엘리트층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오늘날 미술관이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미술관 애호가 층을 유치하고 있다²⁴⁾는 것이다.

특히 현대미술관의 성장과 그 역할의 증대는 놀라운 단계에 도달했다. 근대 이후 미술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미술에서 발전의 논리와 실험의 방향이 일정한 유형으로 ‘이론화’하게 된 것은, 모두 현대미술관의 ‘대부(代父)’ 같은 권위를 정점으로 한 미술비평, 미술시장, 매스컴, 작가활동, 미술교육 등 현대미술의 제반 활동의 제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미술관은 작가의 창작활동의 방식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미술에 대해 갖는 태도와 감정, 즉 미술의 이해방식과 수용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²⁵⁾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미술관에 종사하는 이들에 의하면, 이는 자국의 문화·예술을 가시화하기

23) 미술관은 과거 역사의 산물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소장 작품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현대미술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서비스 기능을 확대시켜 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물리적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역사의 보존과 예술 현장의 활성화 그리고 대중성과 전문성의 공존이라는 오늘날 현대미술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따른 것이다.

24) 사단법인 한국박물관건축학회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건축』 (서울: 현대건축사, 2000), p.28.

25) 성완경, 『민중미술 모더니즘 시각문화』 (서울: 열화당, 1999), p.215.

위한 전략일 수 있으나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물리적 확장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²⁶⁾ 그 이유에 대해서 알버트 녹스 미술관(Albright Knox Gallery)디렉터인 그라코스(Louis Grachos)는 “대중매체 시대의 미술관들은 각종 미디어 및 레저, 오락과 경쟁해야 한다”²⁷⁾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미술관 건립은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매체환경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 속에서 생존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후반의 미술관 현상을 보면 마케팅,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에 유독 관심을 갖고 신축, 증개축 및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과 증개축을 통해 미술관의 기능이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미술관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스테판 웨일(Stephen E. Weil)은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st)』에서, 현대미술관이 직면한 세 가지 위험 요인을 재원(money), 경쟁력(power), 정체성(identity)으로 설명하고 있다.

1950~70년대에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출산율의 급속한 증가, 베이비 붐 현상과 의학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로 중산계층의 폭이 확대되었다. 중산계층 구성원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이 컸고, 여가 활동과 예술 감상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박물관은 양적으로 획기적인 증가를 보였다. 반면 시장 내부가 포화상태를 이루게 되면서 박물관들은 경쟁적으로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주력했고, 이러한 경쟁 관계는 다른 유적지나 문화기관으로 확대되어 일부 박물관은 경제적·정치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 여가활동 영역의 다양화, 박물관의 양적 증가는 결과적으로 박물관의 경쟁력(power)을 약화시켰

26) 미술관의 물리적 확장과 변화의 당위성은 ‘역사를 보전’하는 미술관 본연의 임무와 ‘변화하는 현재와 함께해야한다’는 동시대적 임무의 공전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모던 아트, 컨템포러리 아트, 현재 진행 중인 예술형태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미술관 임무와 역할의 확장, 이러한 확장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물리적 공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76.

27) 이보아 지음,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서울: 역사넷, 2003), p.31.

다. 외부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는데, 소장품 관리를 위한 보존 환경시설의 확충, 전문 인력의 고용, 대중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money)을 겪게 되었다.²⁸⁾

즉, 사회·문화적 변화에 의해 미술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미술관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운영과 재정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 따라서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동시에 운영과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며 건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2. 미술관 건립 패러다임의 현대적 양상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 건립의 붐이 일고 있는데, 미술관은 왜 건립하는 것인가? Smithsonian Institution의 National Portrait Gallery 관장인 Alan fern은 “뮤지엄의 핵심 사업은 일반인이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는 훌륭하고 희귀한 사물을 경험하도록²⁹⁾ 함으로써 사람들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³⁰⁾라고 하였다.

28) 이보아 지음, 위의 책, p.27.

29) 아서 단토에 의하면, 미술관의 경험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경험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지식일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도슨트나 미술사가나 혹은 미술교육 교과과정 따위에 의해 전달되는 유형의 미술 감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에 속하는 지식이다. 또한 이것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새기는 법을 배우는 것하고도 거의 관련이 없다. 이것은 철학과 종교에, 삶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체에 속하는 경험들이다”라고 하였다. Arthur C. Danto 지음, 이성훈·김광우 옮김, 『예술의 종말 이후』 (서울: 미술문화, 2004), p.344.

30) Neil Kotler-Philip kotler, 한중훈·이혜진 옮김, 『박물관 미술관학-뮤지엄 경영과 전

미술관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전시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아름다움과 삶의 여유, 심리적 안정감, 체험과 학습, 교류와 소통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심리학자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이를 ‘최고의 경험(peak experiences)’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함과 동시에 인지하고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뜻한다. 뮤지엄은 영혼을 고양시켜 사고와 감각의 폭을 넓히고 상상력을 자극하여 매혹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다.³¹⁾

이러한 경험들은 어떤 새로운 지역을 방문한 경우, 독특하고 이국적인 문화가 담겨져 있는 미술관을 방문할 때³²⁾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즉, 미술관은 지역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신비감과 경외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이와 같이 미술관은 미술관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아름다움과 삶의 여유를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미술관 내에서의 경험, 체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략-』(서울: 博英社 2005), p.38.

31) Neil Kotler-Philip kotler, 한중훈·이혜진 옮김, 위의 책, p.5.

32)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박물관을 선택하므로 그들의 방문에 대한 기대치도 각각 다르게 된다.(Falk and Dierking 1992) 다음은 박물관 방문에 있어 개개인이 원하게 되는 사항들이다.

- 재창조의 시간으로 가치있고 즐거운 것
- 가족, 친구들과 방문할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킬 것
- 물리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친숙한 경험이 존재할 것: 동물원, 아쿠아리움, 식물관, 살아있는 역사관, 과학센터, 어린이 박물관 등
- 명상적이고 정신적이며 경건한 경험이 될 것
- 혼하지 않고 특이한 것
-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만들 것
- 그들의 관심사를 넓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
- 일과 집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을 것 Gail Dexter Lord, Barry Lord,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 Meeting the Needs of Museum Visitors』(London: The Stationery Office, 1991), p.57~58



상황에서 미술관 건립 패러다임 역시 변화되고 있다. 미술관 건립 패러다임의 가시적 흐름은 과거 소장품의 중요성에서 점차 미술관 안에서의 사고, 각종 모임, 여가활동, 다양한 참여(체험)활동으로 즉, 과거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 문화요소의 일부로서의 미술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역사보다 현재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문화를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미술관 건립 패러다임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미술관 건립 패러다임의 현대적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 배경에는 미술관을 문화요소의 일부로 바라본 새로운 뮤지올로지의 등장이 있었다. 뉴뮤지올로지(New Museology)³³⁾는 전통적인 미술관 개념에 근거한 기존 뮤지올로지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베론(Baron)은 뉴뮤지올로지가 기존 뮤지올로지에 대해 갖는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이 새롭고 활동적인 지역공동체 박물관학(communitary museology)은 제도로서 박물관, 큐레이터의 전지전능함, 다른 학문에 대한 순수예술의 지배, 유물의 본질적인 가치기준으로서 미적 경험, 삶에 대한 유물의 절대적 우위, 그리고 지구의 자원, 주민의 창의성, 시민의 세금을 이윤으로 전환시키는 역사의 영구적 성격과 엘리트적 가치에 결연하게 도전한다.³⁴⁾

전통 뮤지올로지에 대한 뉴뮤지올로지의 비판적 입장은 리바드(Rivard)와 타보르스키(Taborsky)가 주창한 미술관의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33) 뉴뮤지올로지(New Museology)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프랑스,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등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이것은 생태박물관학(ecomuseology), 공동체박물관학(communitary museology)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34) 양현미, 「박물관 연구와 박물관 정책-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박물관 연구와 정책-」(홍익대 대학원, 2001), p.156.

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은 주민이 정체성을 깨닫고, 그러한 정체성을 강화하며 발전에 필요한 잠재력을 확신하도록 하는 데 있다. 리바드와 타보르스키는 정체성을 지역공동체가 갖고 있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총체적 이미지라고 보았다. 박물관의 역할은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의 물질적, 비물질적 차원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시각화하고, 인식하며, 이름을 붙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타보르스키는 이를 ‘적극적인 이미지화(positive imagizing)’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신박물관의 역할이 정체성의 형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돕기도 한다. 박물관은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진술하고, 대안을 지적하며,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박물관은 지역사회와 그 주민의 통합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드 바린은 이런 의미에서 뉴뮤지올로지를 시민대학(people's university)이라고 하였다.³⁵⁾

뉴뮤지올로지는 미술관의 기능 중 교육기관, 지역공동체로서의 소통의 기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문화의 대중화와 민주화 그리고 다원화되는 사회변화와 함께 복합문화공간을 유도하며 새로운 형태의 미술관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1) 평생교육 기능의 강화

현대에 와서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과거 특정계층에게만 향유되었던 미술관이 모든 계층에게 열려 있는 평생 교육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Smithsonian의 초기 국립 미술관장을 지낸 조지 브라운 구드(George Brown Goode)에 의하면 “뮤지엄은 폭 넓은 대중에 봉사하고 뚜렷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뮤지엄은 단지

35) 양현미, 위의 논문, pp.156~157.



전문직 종사자와 여가를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술자, 공장 노동자, 심지어는 세일즈맨의 요구사항에도 부응하여야 한다면서 어떠한 뮤지엄도 배움의 장이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발전할 수 없다”³⁶⁾ 라고 하였다.

그리고 Goode의 뒤를 이어 20세기 초에 관객 지향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그리고 교육 지향적인 뮤지엄을 역설했던 뉴왁 미술관(Newark Museum)의 설립자인 존 코튼 다나(John Cotton Dana)³⁷⁾는 “뮤지엄은 교육을 위하여 지역에 있는 각종 시각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을 확보해야 하며, 뮤지엄은 서서히 살아 있는 유기체로 발전하여, 많은 교사와 함께 충분한 워크샵과 강좌를 마련하고 소장품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³⁸⁾ 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미술관으로 가는 이유를 관람자의 행동과 심리에 따라 6개의 주요한 표준들로 기술한, 미국의 뮤지엄 교육이론가인 마릴린 후드(Marlyn Hood)는 “대중 또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고,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하고, 쾌적한 환경과 편안히 쉴 수 있는 감정 상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배움에 대해 기회가 되는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가”³⁹⁾에 대한 판단이 미술관을 찾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미하일리 칙첸미하일리 (Mihaly Csikszentmihalyi)가 “사람들이 보상이 없더라도 어떤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그 행위 자체보다도

36) Neil Kotler·Philip kotler, 한중훈·이혜진 옮김, 『박물관 미술관학-뮤지엄 경영과 전략-』 (서울: 博英社, 2005), p.16.

37) 뉴왁미술관(Newark Museum)의 디렉터인 다나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미술관의 의미를 고찰하는 <새로운 미술관>이라는 저서를 저술하였다. 그는 미술관의 주요 기능에 있어서 소장기능보다 전시에, 보존기능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다나의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는 테오도르 로우(Theodore L. Low)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미술관>에서 미술관의 기능으로서 대중과의 접촉에 관계하는 전시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8) Neil Kotler·Philip kotler, 한중훈·이혜진 옮김, 위의 책, p.16.

39) John H. Falk and Lynn D. Dierking, “The Museum as a Leisure-Time Experience”, In The Museum Experience, Whalesback, 1992.



‘흐름(flow)’ 즉, 사람들이 무언가가 잘 된다고 느낄 때, 깊이 몰두하고 힘들지 않게 발전하는 것을 체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있다”⁴⁰⁾고 한 점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평생교육의 장소로서 미술관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 여가시간의 증대, 문화수요의 욕구에 따라 자아실현과 감수성의 발로, 가치있는 경험의 장소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확대⁴¹⁾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지만 동물의 상호작용은 본능적이며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반면, 인간의 상호작용은 끊임없는 ‘배움’과 ‘다시 배움’의 과정으로, 인간은 현실을 조직하고 재구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윌리엄스에게 있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에서 겪게 되는 경험을 통해(혹은 그 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모습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40) Csikszentmihalyi의 ‘흐르는’ 경험에서 발견한 것과 같이, 경험의 질이 아주 높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보상의 약속이 없어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Csikszentmihalyi는 흐름을 위한 세 가지 결정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 개인이 현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적합한 일일 것

- 한정된 자극의 영역에 주의를 집중시킬 것

- 그러한 경험은 “분명하고 모순되지 않는 필요를 지닌 행동, 그리고 분명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을 포함해야 한다. 흐름 체험에 대한 보상 가운데는 일상적인 관심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느낌, 자부심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각, 발견의 기쁨, 개인적인 풍요로움의 느낌 등이 있다. Marlene Chambers, "Beyond 'Aha!': Motivating Museum visitors", In What Research Says About Learning in Science Museums,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s, 1990.

41) 1971년 뮌헨에서 열린 제8차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총회는 ‘인간을 위한 박물관, 오늘과 내일: 박물관의 교육적·문화적 역할’을 주제로 삼게 된다. 이는 박물관의 존재의미를 사회와의 관계에서 고찰하도록 하였으며, 소장품의 보존과 연구 중심의 박물관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전시, 교육 등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박물관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양현미, 위의 논문, p.130.

있다.⁴²⁾

드 바린(de Varine) 또한 “우리에게 있어 박물관은 사회가 변화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완벽한 도구들 중 하나가 되거나 되어야 하며, 이러한 박물관 개념의 중심에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 놓여 있다”⁴³⁾라고 하여 미술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뮤지엄 안에서의 소통 외에도, 관객들은 ‘뮤지엄 밖에서의 소통문제(museum communication off-site)’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매체와의 관계성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적, 사업적, 교육적 그리고 문화적 공동체들을 지지하기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아웃리치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뮤지엄들은 쇼핑장소나, 학교, 병원, 또는 일상적인 삶의 공간 속에서 활동과 이벤트를 만든다. 어떠한 뮤지엄들은 움직이는 뮤지엄 공간을 만들으로써, 컬렉션들을 옮기고, 집의 마당이나, 학교의 운동장, 장터, 또는 야외의 음악회 공간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만든다. 또한 학교나 다른 제도 및 기관에 컬렉션을 빌려 주기도 한다.⁴⁴⁾

최근 찾아가는 박물관, 각종 이동전시, 작은 미술관, 공항에 비치되어 있는 소규모 미술관들의 아웃리치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교류와 소통의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들이라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미술관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와 달리 미술관은 다양한 관람자의 체험 향상을 위한 해석기능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소장품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여 소통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앞으로도 미술관 안과 밖에서의 소통을 위한 교류는 끊임없이 연구, 실천되고 있다.

42) 강명구,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1993), p.65.

43) 양현미, 위의 논문, p.156.

44) 김형숙, 위의 책, p.44.

(3)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다변화

오늘날 미술관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현상만큼이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술관은 과거에 귀족들의 소유물이었던 것에서 현대에는 폭넓은 대중을 그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여가생활의 확대, 편리한 교통수단, TV·인터넷 등이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술관은 소장품을 보여주는 수동적 기능을 넘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한 성격과 시설(각종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쇼핑센터, 카페·레스토랑 등), 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 요인들로 재원 조성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소장품 관리, 전문 인력 고용, 공공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는 점차 늘어나서, 몇몇 부유층과 특정 관심 단체에 의지하던 기부금만으로는 박물관의 예산을 충당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대형 미술관도 거의 예외 없이, 재정, 인력,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술관 운영의 어려움은 멜버른 소재 국립 빅토리아 미술관(National Gallery of Victoria) 광고에 잘 나타나 있다.

국립 빅토리아 미술관은 미술관 그 이상입니다. 이곳은 발길을 옮기는 곳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지입니다. 예술, 풍경, 건축, 대중 프로그램,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시에서부터 식당, 카페, 모두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위대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들, 국립 빅토리아 미술관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예술입니다.⁴⁵⁾

국립 빅토리아 미술관의 광고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복합적 형태로 다양하게 요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술관을 운

45) “New Ways of Experiencing Culture : the Role of Museum and Marketing Implications”, 『Museums Management and Curatorship』 (Jean-Marie Mariotti Center, Butterworth)



영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대 미술관의 중요한 일이다.

재원조성을 위해 ‘비영리적이며 항구적인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박물관의 정의 또한 변화하여,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관람자를 위한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재원조성을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단일 구조의 미술관 기능과 역할로는 방문객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도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건립되는 미술관들은 이러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과 역할들이 연결되어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선호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국립현대미술관인龐피두센터(Centre Georges Pompidou)⁴⁶⁾는 복합문화공간으로 1977년에 개관한 초현대식 건물이다.龐피두센터의 출현은 미술관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龐피두센터는 건축 설계에서부터 ‘신성한 신전’으로서의 미술관이 아닌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익한 장소’로 구상하였다. 내부가 외부로 모든 것이 노출되어 미완성된 듯한 건축은 새로운 미술관 건축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龐피두센터는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이긴 하지만 뮤지엄 기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서관 기능을 수용하고 현대적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뮤지엄의 전통적 정신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곳은 공공정보도서관의 활성화로 문화정보의 메카로서 중요성을 더 두고 있다. 전통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발상으로 건립된龐피두센터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미술관 건립계획 수립 시 현대미술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기능의 미술관에 대해 미카엘 다우스카트⁴⁷⁾는 「박물관의 더 효율

46) 1970년대에 이미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표방하여 만들어진龐피두센터는 개방성, 투명성, 유희성을 기본 정신으로 건립되었다.龐피두센터는 건립 당시 아직도 공사 중인 듯한 외형으로 파리 시민들의 비판이 많았으나, 현재 현대미술관, 연구소, 도서관, 영화관, 각종 전시실, 회의장 등이 있어 파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전 세계인들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47) 미카엘 다우스카트는 독일 수공업과 기술 박물관인 베스트팔리슈 프레리히트 무제움 하겐의 관장이다. 이 박물관은 야외에 설치된 중요한 박물관이다. 세계박물관협회



적인 경영을 위해」라는 논문에서 “새로운 목표를 정한 마케팅 전략과 잠재된 방문객들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점차 수입을 증가시키며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방문객을 끌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은, 엄밀히 상업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미술관은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 제도이며 항구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공적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미술관은 보존과 교육, 그리고 연구의 목적이 위축될 수 있으며 오락의 장소가 될 가능성 또한 내포되어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공공 기금의 제한을 고려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경영적인’ 접근을 하여 손해를 최대한 줄이느냐, 또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상업’에 빠지지 않고서도 방문객들의 구매력을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⁴⁸⁾라고 했다. 미카엘 다우스카트의 언급처럼 앞으로 미술관 건립 계획은 비영리 제도이며 항구적인 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재정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수익성 창출 마련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 것인가가 과제이다.

<표 1>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다변화⁴⁹⁾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다변화
유물(object) → 체험(experience) 의미 있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contents가 중요 보존 → 사회교육기능 확대 동시대의 이념적·예술적·기술적·교육적 현실과 상호 교류하는 복합문화시설 지향 → 미술이라는 제한된 영역이 아닌 탈 장르화 시도

(ICOM) 편, 하태환 옮김, 위의 책, p.281.

48) 세계박물관협회(ICOM) 편, 하태환 옮김, 위의 책 게리 에디슨과 데이비드 던에 의하면, “박물관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신뢰를 표현하는 특별한 소장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박물관이 수행하던 핵심적인 역할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소장품들은 박물관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였으나,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소장품과 수집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연구조사, 공공봉사, 교육을 제공하던 전통적인 방식은 새로운 표현방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p.283.



→ 공연장 및 강당 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설계
 관람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사업의 적극적 추진
 → 연극, 영화, 음악회, 콘서트 등
 카페, 식당, 아트샵 등 편의시설의 복합화 및 서비스 기능의 확대

3. 프로젝트로서의 미술관 건립 기획과 실행

(1) 미술관 건립의 제 문제

새로운 미술관을 건립하는 일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투여되는 사업이다. 구미 각국 미술관에서는 이미 미술관 건립에서부터 체계와 포괄적 개념을 갖춘 추진과정을 밟아 건립 후 미술관 운영의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⁵⁰⁾ 그만큼 미술관 건립은 한번 건립하면 다시 옮길 수도 없고 쉽게 허물 수도 없으므로 전문적인 건립 체계를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구미 각국에서는 미술관 건립 계획수립을 프로젝트로서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건립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시작은 지역사회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이유를 지역주민들에게 타당하고 명확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미술관 건립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미술관 건립을 위한 성격과 기본방향

49) 이상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연구자가 정리해 본 것이다.

50) 새로운 뮤지엄을 기획하거나, 오래된 것을 재설명하는 것은 뮤지엄의 양상마다 다를 수 있으나 결국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 본질이다. 뮤지엄 기획에 있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방문자의 신체적인, 지식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감성적으로 허용되는 목표가 되는 그룹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시도가 제공되지 않는 계획이라면 정교하고 분명하게 디자인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다. Gail Dexter Lord, Barry Lord,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1991), p.30.



설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물관은 다수의 목적과 기능,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복합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프로그램과 운영의 다원성 때문에 하나의 설립취지(mission)와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박물관 내부의 여러 가지 목적과 외부로부터의 복잡다단한 기대가 균형있게 조절되어야 한다.⁵¹⁾

새로운 미술관을 건립할 때는 문화 복수주의(cultural pluralism)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박물관은 이러한 다양성을 문서로 남기고 증명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한다.⁵²⁾ 그러나 세계의 지구촌화 성향과 다국간의 경제적·문화적 상호교류 작용은 현존하는 상황들에 대한 미시적인 반응보다는 거시적인 미래관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내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⁵³⁾

뮤지엄 기획자인 게일 로드(Gail Dexter Lord)와 베리 로드(Barry Lord)는 뮤지엄 계획의 정의를 “최적의 기능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되거나 리노베이션 되어진 뮤지엄이 포함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적절히 관리하여 문화적 물질에 대한 보존과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연구와 실천이다.”라고 말하면서 뮤지엄 계획의 목표는 “미학적 즐거움과 소장품들의 효과적인 보존과 해석을 관람객들에게 줄 수 있는 공간과 제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건립하고, 또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⁵⁴⁾ 또

51) Neil Kotler-Philip kotler, 한종훈·이혜진 옮김, 위의 책, p.36.

52) 뮤지엄 기획자의 도전은 주제에 대해 알고 싶어서든, 좋아하는 그림의 미학을 느껴보고 싶어서든, 뮤지엄 자체의 경이로움에 의해서든 더 많은 사람들이 뮤지엄을 방문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53) 게리 에드슨·데이비드 던 지음, 위의 책, p.22.

54) Gail Dexter Lord, Barry Lord,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1991), p.2.



한 뮤지엄의 계획은 연속적인 과정이어야 하며, 그 기관과 그 주변 커뮤니티의 변화하는 요구를 인식하기 위해 통합된 계획(corporate plan)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되고 재조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뮤지엄들은 종종 급작스럽게 그리고 공간제한의 압박과 눈에 띄는 부적합한 설비 또는 예상치 못한 확장 기회에 의해 야기된 절박감에 당면해서야 계획을 하려한다. 또한 건물의 한 유형으로서 발전하는 뮤지엄의 정교화세련미는 고려하면서, 뮤지엄 제도의 요구, 변화하는 커뮤니티와 그 시장과의 관계-종종 계획과정의 핵심적인 이슈등과 같은 비건축적인 이슈들은 언급하지 않는다면,⁵⁵⁾ 아무리 마음에 드는 건축이라 하더라도 뮤지엄 계획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뮤지엄 계획은 소장품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과학과 기술 뿐 아니라, 그것들의 소개와 해석에 뿌리를 둔 명확하게 박물관학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큐레이터쉽, 보존, 해석 또는 박물관 교육과 같은 박물관학의 특별 분야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⁵⁶⁾ 그리고 베리 로드는 미술관 건립에 있어 제일 중요시되는 것은 뮤지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이라 하였다.

근래에 와서는 소장품 없이 현장중심의 기획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도 건립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의 선진 미술관의 경우를 보면 소장품의 질적 수준이나 성격에 따라 건립을 하였다.⁵⁷⁾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미술관건립 배경을 보면 소장품의 성격은 고사하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건물을 먼저 짓는 데서 미술관 운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미술관 운영의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건립계획 초기부터 지역

55) Gail Dexter Lord, Barry Lord, 위의 책, p.2

56) Gail Dexter Lord, Barry Lord, 위의 책, p.3

57) 큐레이팅의 내적인 필요와 소장품의 보존과 공공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 사이, 또는 미래의 방문객과 기존의 방문객 사이의 집중되는 균형의 관계는 뮤지엄 건립 기획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다. 방문객이 없는 뮤지엄은 단지 컬렉션뿐이며, 누구를 위한 보존되는가? 반대로, 뮤지엄의 적절한 소장품 운영이나 소장품의 연구가 없다면 그 물건들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Gail Dexter Lord, Barry Lord, 위의 책, p.22.

사회에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 논의과정 중에 현재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상세한 현황을 조사하여 새로 건립될 미술관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 미술관 건립 계획수립

게리 로드는 뮤지엄 계획⁵⁸⁾은 ‘일을 계획하는 것’과 ‘계획을 수행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 계획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지속적인 참여, 계획의 계획”⁵⁹⁾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⁶⁰⁾를 구성해 전반적인 미술관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⁶¹⁾을 마련한다.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건립 계획을 체계적·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58) 뮤지엄 계획은 소장품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소개와 해석에 뿌리를 둔 명확하게 뮤지올로지의 분야이다. 따라서 큐레이터쉽, 보존, 해석 또는 뮤지엄 교육과 같은 뮤지올로지의 특별 분야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Gail Dexter Lord, Barry Lord, 위의 책, p.4.

새로운 미술관을 기획하거나 기존의 미술관을 확장하는 계획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술관의 법률적 구조이며, 미술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 내지는 그것의 프로그램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기타 수많은 공공기관 혹은 사립단체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이다. 즉, 우리가 기획하고자 하는 대상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단체(제도)의 유형은 무엇인가, 결정한 단체(제도)가 기타 관련 단체·기관(제도) 등과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그 목적을 최대한도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59) Gail Dexter Lord, Barry Lord, 위의 책, p.4.

60) 미술관 건립 주체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조직되고 법인이나 재단이 주체가 될 경우에는 이사회(Trustees)가 조직된다. 이들은 건립 계획을 진행하면서 내·외부의 여러 환경요인들로 인한 프로젝트의 수정이나 요구사항들, 미술관의 모든 정책과 주요 재정,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진다.

61)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박물관의 목적은 공간이나 시설의 효율성을 개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시 공간 혹은 시설이 제한적이더라도 컬렉션을 관리하거나 전시회 혹은 기타 교육프로그램 유치 등은 확대된다는 것을 예상하여 공간과 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을 담당한다. 따라서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을 갖춘 미술관학 학자, 전시기획자, 조경가, 미술관 전문 건축가, 행정가 등 전문분야의 인력들이 참여해 미술관 건립 추진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3) 미술관 건립 계획실행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 미술관 건립이 진행된다.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는 박물관학자, 전문전시기획자, 미술관 건축가, 조경가, 행정가 등 전문분야의 핵심 인적구성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는 지역의 바람직한 미술관의 모습을 구상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⁶²⁾

따라서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는 치밀한 계획 하에 최근의 미술관 건립동향과 흐름을 파악하며 구미 각국 미술관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와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연구라야 한다. 그리고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대부분 루브르 미술관, 스미소니언,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등 대규모 미술관의 건립을 사례로 들고 있으나 그 이전에 성공적인 미술관이 되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건립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유명한 미술관의 성공사례는 선진미술관 문화의 동향으로 참고할 뿐이며 지역에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와 같은 건립의 문제점을 게일 로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62) Ted Silberberg의 <The Importance of Market and Financial Feasibility>에 의하면, 실행가능연구(기본계획연구)는 사실상 모든 유형의 박물관 프로젝트의 기획에 선행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박물관 규모를 최대화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실행가능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컬렉션을 전시하고 보관하는데 필요한 공간은 그 공간을 운영하는 비용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 만약에 운영비용이 매우 높아서 난방과 조명에 지출되어야 하는 이유로 학예기획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면 편의시설 프로그램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Gail Dexter Lord, Barry Lord, 위의 책, pp.99~100.

한 박물관에서 잘 이뤄진 일은 다른 박물관에서도 똑같이 잘 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인한 취사선택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온대성 기후에 적합한 천장 채광창 시스템이 한대지방에 적용되어 끝없는 누수를 불러일으키고, 또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고비용으로 유지되는 하이테크 전시기법이 적용되는 것을 본다. 다른 박물관에서 쓰인 좋은 아이디어들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설비를 계획하기 전에 각각의 소장품, 각각의 제도, 그리고 각각의 커뮤니티에 맞는 독특한 욕구가 먼저 이해되어야만 한다.⁶³⁾

이는 미술관 건립 계획수립 시, 지역의 행정, 제도, 인구, 시장 등 현실적 여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1) 미술관 성격규정⁶⁴⁾

미술관은 건물부터 지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미술관의 보편성을 어떻게 새로 건립되는 미술관에 넣어 새로운 특수성을 도출시킬 것인가 하는 미술관 성격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의 성격규정은 건립 초기부터 다양한 포럼을 통해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미술관의 성격규정은 건립 계획수립 시, 규모와 시설, 공간, 건축, 예산, 조직, 인원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므로 성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⁶⁵⁾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선 미술관 건립 계획에 대한

63) Gail Dexter Lord, Barry Lord, 위의 책, p.2.

64) 새로운 미술관을 건립하거나 증개축 및 확장하는 미술관이 갖는 미션(mission)을 기술한다는 것은 미술관의 목적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는, 미술관 설립 혹은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정당화하고 미술관이 존재하는 필수적인 목적을 기술한다는 의미이다. 기술되는 미션은 간결해야 하고, 기억하기 좋아야 하며, 고무적이어야 한다. 또한 미션은 쉽게 변하지 않아야 하며, 너무 모호하거나 거창하게 기술된 미션이 채택되면, 기획 절차에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미션을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65) 미술관의 성격규정은 중요하다. 미술관의 장기적인 목표가 컬렉션을 유지·보존하는

풍부한 경험과 기획력, 현재의 미술관 문화의 흐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 문화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 현황 분석, 구미 각국의 미술관 문화 및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 동향과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국내·외 미술관 건립 사례분석, 문화·사회적 변화, 문화 향수자 조사와 지역의 시장성 분석 등이 필요하다.

2) 미술관 입지 분석 및 선정

미술관 건립을 위한 주체가 결정되고 미술관의 특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성격이 규정되면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를 토대로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미술관 건립에 있어 입지 선정기준은 접근의 일상성, 대중성, 주변상황과 환경, 장소의 인지성, 장소의 역사성, 이미지, 주변시설과의 연계, 도시정비·개발효과, 확장가능성, 사업의 용이성, 관광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미술관의 접근성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있어야겠지만 요즘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미술관 건립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이며 생태학습의 장인 공원중심의 미술관들도 건립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각종 배기가스, 도시의 소음과 진동, 매연 등으로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술관 입지는 당연히 도심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은 사회변화와 대중의 시대적 요구 등에 의해 변화되고 있어 입지분석 시, 대중교통을 포함한 일상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자연의 접근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것이라면, 적절한 환경 통제와 보안이 갖춰진 보관실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며, 컬렉션을 유지·보존하는 목적이 관람객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과 이를 전달하는 관계자 직원 내지는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공간이 우선순위가 된다. 반면, 컬렉션과 전시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전시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미술관의 전통적 기능인 연구, 보존 못지않게 미술관의 핵심 기능인 관람객의 서비스 기능 강화와 다양한 계층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기능들을 통해 미술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중요하다. 또한 자가 차량의 증가로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예산 사정으로 처음부터 원하는 미술관을 다 지을 수 없으므로 미래의 관객확보를 위해 향후 증축 및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둬야 한다.

그러나 외곽에 공원중심의 미술관을 건립하고 싶다면 우선 주변 자연환경과 위생환경 및 교통사정, 그리고 향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도시인에게 활력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심에 미술관을 건립해야 하는 논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미술관의 접근성을 분석할 때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인문학적·자연적·환경적·지정학적 위치를 분석하여 지역적·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3) 소장품 정책 마련

존 닉스(John Nicks)는 소장품의 중요성에서 “뮤지엄은 발굴된 자료들을 보존, 기록, 연구하며 전시와 교육을 통해서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 위해 존재한다. 그 모든 것은 뮤지엄의 소장품을 통해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뮤지엄의 주요 프로젝트는 그것이 대단히 기념비적이거나 사용자에게 친숙한 것일 지라도 유능한 소장품 관리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⁶⁶⁾라고 하여 미술관 건립 계획 수립 시, 소장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어떤 소장품을 소장하고 있는가에 따라 미술관은 성격을 드러내므로 소장품에 관한 지침은 미술관에 부여된 임무와 지시로부터 나온다. 명확하고 분명한 소장품 지침은 소장품 분야의 종류, 유형들을 정의함으로써 소장품의 외형적 윤곽을 잡아준다. 「Collections Management」에서 존 닉스는 소장품에 관한 지침에

66) Gail Dexter Lord, Barry Lord, 위의 책, pp.109.



있어 다음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소장품에 관한 지침⁶⁷⁾

어떤 종류의 박물관인가? 예를 들면 미술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과학 박물관 등.
어떤 분야를 보여주는가? 자연사 박물관이라면 어느 특정 분야를 전시하는가?
소장품의 범주에 어떤 것을 포함하는가? - 인공물, 복제품, 예술작품, 문서기록, 사진기록, 필름, 스틸 이미지, 비디오 테잎, 비디오 디스크, 홀로그래픽, 테이프나 디스크에 담긴 컴퓨터 데이터.
소장품의 시간적 한계(경계)는 무엇인가? 그 기간을 확대시켜야 하는가? 혹은 축소시켜야 하는가? 지리적인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제작된 물건이 쓰이던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한가? 혹은 그것이 생산된 지역으로 한정할 것인가?
소장품은 기존의 연계성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각 개체의 특성과 장소성 등이 연결되어 규정되는 것인가? 또 그것들은 그 기간의 일반적인 예가 될 수 있는가?
소장품으로 받아들여지는 질적 기준은 무엇인가? 소장품 지침은 소장품 수집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거나 디스플레이의 질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다양한 수집 기준에 어떤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는가? 소장품의 보존 상태가 가장 중요한지, 그렇다면 그것의 배경과 상황 등은 부차적인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큐레이터 업무와 보존 설비를 위한 미래의 요구들에 대한 정의에 도움을 줄 것이다.
수집 기준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포함한다. - 사이즈, 출처, 타이틀(소유자), 배경과 연상 관계, 진귀성 또는 성격, 다른 소장품과의 관련성.

67) Gail Dexter Lord, Barry Lord, 위의 책, pp.116~117.

이와 같은 예들은 소장품 지침에 관련된 정책 결정이 공간과 설비의 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존 닉스는 미술관 확장이나 개축 또는 새로운 미술관을 계획함에 있어 소장품을 다루는 책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온도 조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수장고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소장품의 필요성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소장품 분야에 있어 의미있는 참여는 큐레이팅, 문헌자료, 보존, 준비 등에 대한 관점을 확실히 시키는데 필요하다”⁶⁸⁾라고 하여 미술관 기획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장품 매니지먼트(Collections Management)의 의미가 확대되어 미술관 소장품의 범위가 회화나 조각, 사진, 드로잉, 판화와 같은 전통적인 장르를 넘어 공예품, 디자인, 설치, 건축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소장품 범위와 소장공간에 대한 미래적 비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⁶⁹⁾이다.

68) Gail Dexter Lord, Barry Lord, 위의 책, pp.114.

69) 게리 에디슨과 데이비드 딘에 의하면, “박물관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신뢰를 표현하는 특별한 소장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박물관이 수행하던 핵심적인 역할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소장품들은 박물관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였으나,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소장품과 수집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연구조사, 공공봉사, 교육을 제공하던 전통적인 방식은 새로운 표현방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게리 에드슨 데이비드 딘 지음, 한중훈·이혜진 옮김, 위의 책, pp.23~24.

Ⅲ.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경과 분석

1. 미술관 건립 동기와 배경⁷⁰⁾

(1)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21세기는 ‘문화의 황금시대’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 건립의 붐이 일고 있고, 예전과 달리 단일 기능의 공간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추구하며 프로젝트로서의 미술관 건립은 그 규모와 예산에 있어 더 그랜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천만 인구의 경기도는 고양시 덕양구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덕양어울림누리를 개관하고, 2006년 10월에 개관한 경기도미술관을 비롯해 백남준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문화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 인권의 상징 도시인 광주 역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아시아권내에서 문화광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10년 간 비엔날레를 유치하고 있고, 광주현대미술관을 건립해 문화산업을 점차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공립미술관 건립은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는 물론 지역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지역 경제까지 되살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70)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에 의하면, “미술관 건립 목적을 지역문화정체성의 지속, 도민문화향수권보호, 지역·국가·아시아·국제미술문화선도”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제주도가 현대성을 드러낼 문화공간이 열악하고 그로인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일도 중요하나, 우선적으로 섬이라는 닫힌 구조에서 무한히 열려있는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문화 인프라 구축과 지역작가의 창작기회 및 도민 문화 향수권 확대, 그리고 지역간 미술교류의 활성화를 건립배경으로 정하였다.

제주도 역시 문화회관, 마을회관과 여성회관, 청소년의 집, 문화의 집 등 문화 수요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주5일 근무·수업이 도입되면서 각종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관련 강좌 및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은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2) 지역작가 창작기회 및 도민 문화향수권 확대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인프라 시설이 매우 취약하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이미 관광테마별 박물관들은 많이 건립되어 있으나 제주도 문화·예술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 미술관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내 박물관들 중 소리섬 박물관과 방림원 식물원이 각각 박물관·식물원으로 등록이 되었고 제주시에서 대규모로 조성한 돌문화공원과 해녀박물관이 각각 2006년 6월에 개관하였다. 관광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초콜릿, 감귤, 닥종이 인형, 영화, 녹차 등 관광 테마별 박물관들은 이미 건립되어 있다. 그러나 도내 예술인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전시공간과 국제적 또는 전국적 규모의 다양한 현대미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내 개관준비 중에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한 수는 대략 44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귀포 기당미술관, 이중섭 미술관과 얼마 전에 1등급 미술관으로 등록이 된 김영갑 사진갤러리 두모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중섭 미술관과 김영갑 사진 갤러리는 새로운 기획 전시를 유치할 수 있는 유동적 전시공간이라기보다 미술관 자체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 상설전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대관을 받으며 지역작가의 작품을 유치하고 있는 장소는

서귀포 기당미술관으로서 몇 년 전부터 대관을 받으면서 지역작가 창작의 장소로 활용하며 도민문화 향수권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과 제주도문예회관 및 신산갤러리와 최근 라마다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마다 아트갤러리가 대관을 받으며 지역작가 창작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열악한 문화기반시설의 현실을 볼 때 관광차원을 떠나서 우선 지역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욕구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도민문화향수권을 확대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제주도립미술관건립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3> 제주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2006년)

구분	내용
박물관 (33개소)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중문민속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탐라박물관, 제주신영영화박물관, 이승만기념관, 공완구전시관, 오설록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아프리카박물관, 소리섬박물관, 서귀포감귤박물관, 초콜릿박물관, 우양수석박물관, 평화박물관, 닥종이인형박물관, 건강과 성교육박물관, 설록차 뮤지엄 오 설록, 제주관광 여미지 식물원, 제주테디베어 뮤지엄, 제주미니미니랜드, 우도박물관, 제주야생초 방립원, 제주조각공원, 나비생태전시관, 남제주군 감귤판매 전시관, 생각하는 정원 분재예술원, 한림공원, 제주해녀박물관, 돌문화공원, 서복전시관,
미술관 (5개소)	서귀포시기당미술관, 서귀포시이중섭미술관, 김영갑갤러리두모악, 금오당미술관, 저지현대미술관(건립 중)
전시공간 (6개소)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 신산갤러리, 중앙갤러리, 포토갤러리 자연사랑, 아트스페이스 C, 하리갤러리, 라마다아트갤러리

(3) 지역 간 미술교류의 활성화

인식기반사회로 도래하면서 국제금융, 자본, 물류의 교류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며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하는 배경에는 인종,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다양성과 상

호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가 처음부터 본래성을 갖고 그 지역에 존재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나 문화와 문화 간의 끊임없는 교류와 소통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어 고유성을 띄게 되는 부분을 인식한다면 앞으로 더욱 문화예술을 통한 인적교류의 활성화는 중요하다.

예술세계 속에 펼쳐져 있는 삶의 내용과 형식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된다. 예술간 문화교류란, 또 예술교류의 활성화란 다른 아닌 한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집약되고 정제된 텍스트의 주고받음이고, 그를 통해 서로의 상태에 대한 이해이든, 예술적 교감을 통한 상호발전의 계기를 맞든 그 작용은 매우 자연스러운 교류과정이며, 교류의 효과일 수 있다.⁷¹⁾

예로부터 삼다(三多:여자·돌·바람), 삼무(三無:대문·도둑·거지)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는 한국·중국·일본 등으로 둘러싸인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연간 5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섬이다. 동북아시아 해상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는 주변에 한국 본토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⁷²⁾

제주도는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을 살려 지역간 미술교류의 활성화를 제주도립 미술관의 특수성으로 자리한다면 향후 지역작가 창작기회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새로운 미술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2. 미술관 건립 추진경과

(1) 미술관 건립 계획수립

7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동북아시아대 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39.

72) 제주도 · (사)제주민예총, 위의 책, p.7.

제주도립미술관건립 추진 경과는 2004년 발간한 제주도립미술관건립기본계획 연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과 이후로 정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립미술관을 포함해 제주종합문화센터,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주체인 제주도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여 제주지역문화발전과 국제적인 미술관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⁷³⁾

지난 2000년 4월 도내에 도립미술관의 필요성에 따라 제주미협, 탐라미술인협회, 재경한라미술인협회로 구성된 3개 단체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미술관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하게 되었다.

제주도립미술관건립은 2002년 제주도가 국비 30억, 특별교부세 30억, 도비 60억 원 등 120억 원을 들여 1만6530㎡(5,000평) 부지에 연건평 6612㎡(2,0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전시실, 세미나실, 휴게소, 수장고 등의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립추진위는 제주도가 제시한 미술관 규모로는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소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갖는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 인프라로서 대규모 국제전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미술관 규모는 적어도 3만 3000㎡(1만평) 이상의 면적에 원활한 교통과 도보 이용성 등 접근성이 좋은 제주시에 소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사라봉 인근 대지를 미술관 부지로 추천하였는데, 이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 인프라로써 대규모 국제전시가 가능하고, 유소년·청장년·노년층 등 사회 계 계층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인 만큼 대중

73)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 건립 목적을 보면,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예술창작 기회 활성화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으나 좀더 세부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드러낸 목표를 담지 못하고 있다.

이 접근하기 쉽고 제주도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부지는 우당도서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무형문화재 전수관, 만덕관 등 관련 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이 높아 미술관이 건립되면 제주중심 문화벨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⁷⁴⁾는 판단 하에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라봉 인근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협소하고 녹지지역이라는 이유로 건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43평화공원인근 부지와 북제주군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돌문화공원 인근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펴왔던 정부의 ‘1도(시) 1미술관’ 정책이 2002년 4월 ‘공립(박물관)미술관 문화기반시설 확충’ 정책으로 개편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30억 원의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기금지원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부지 1만평에, 연면적 2,000평 규모의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제주시청건물이 향후 이전을 계획했고 기존의 청사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⁷⁵⁾이 기존의 대법원 건물을 미술관으로 개축하여 서울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현 시청건물을 미술관으로 활용할 경우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 도심 속 문화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할 만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현 시청 건물을 미술관으로 건립하는 문제는 바람직하지만 제주시청 부지 면적은 주차장을 포함해 3,000여 평이므로 다층공간을 이용한 건축형태로 될 가능성이 많으며 옥외공간을 조성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청건물은

74) 제민일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장소 사라봉 인근 물망」(제민일보, 2002. 5. 10)

75)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 건립 과정에서 현 건물을 개축하여 건립한 예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본래 일제치하에서 경성재판소로 준공되었다가 해방 후 1920년대 르네상스식 건물인 옛 대법원 건물의 전면부를 보존하고 후면부는 현대적 건물로 재건축하여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으로 탄생되었다. 건축의 전면부인 피사드 부분은 한국 근대 건축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보존, 복원하고 건물의 후면 부분은 신축함으로써 1900년대와 2000년대가 한 벽체를 공유하며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차후 사용 용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술관 건립사업 주체인 제주도는 2004년 제주도립미술관건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미술관건립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 미술관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하면서 미술관건립 사업에 구체성을 띠게 되었다.

(2)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안 개요

제주도립미술관건립 사업은 2000년도에 미술관건립추진위가 결성되어 2004년 기본계획연구를 착수하기까지 미술관 입지를 선정하지 못해 연속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4년도, 제주도립미술관건립기본계획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립추진은 물론 제주지역에 걸 맞는 바람직한 미술관은 어떤 모습인가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기본계획에 참여한 연구진은 21세기 문화경쟁의 시대를 맞아 미술관건립 사업은 지역이나 국가에 커다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그러나 국가별, 지역별 차별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 하에 미술관건립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미술관 성격 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타 도시와의 차별화 된 미술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술관의 성격 규정을 우선으로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현행 국공립미술관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바람직한 제주도립미술관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술관의 입지로 어느 곳이 가장 적당한가에 관한 세미나에서 당시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시민, 청소년, 노약자, 어린이 등 대중의 접근성을 위해 미술관은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건립비보다 운영예산 확보방안이 더 중요하고 미술관건립에 대한 행정 의지가 확고해야 되며 미술관 직제와 관련해서도 학예직 중심의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회의에서는 미술관건립 사업이 자칫 지역 간 불균형을 우려하게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각종 문화시설의 제주시 집중에 따른 문화예술향유기회 불균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제주시 이외의 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 미술관들의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예산 지원과 전문가에 의한 운영은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궁극적으로 미술관은 학예실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설 등의 업무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미술관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실험적 예술품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술관 건립부지와 관련해 연구팀은 도시·군 자치단체에서 추천받은 미술관 건립 후보지 7곳 중에서 대중성, 접근의 일상성, 주변 시설과의 연계, 장소의 인지도 등을 감안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인근 오라동 일원, 제주시 봉개동 소재 어린이 교통공원 부지 내,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소재 돌박물관 내 3곳을 선정했다.

연구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주도립미술관건립사업의 기본개요는 1만평 부지에 연면적 3천평 규모로 건립되는 미술관으로서 전시장(1천2백평), 수장고(3백평), 사무실(6백평), 서비스공간(6백평)으로 구성되는 현대미술관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미술관 총 공사비는 부대비용과 대지구입비를 포함하여 약 370여 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요약하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에 의하면, “수장고 면적이 3백 평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미술관의 기능이 확대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도가 국제적 규모의 다양한 현대미술을 유치하고 소장하기 위해서는 연구서가 제시하는 소장규모로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

라서 앞으로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수집하고 수장고 안에서 원활하게 작업하려면 수장고 면적이 넓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 4>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 개요⁷⁶⁾

부지	연면적	전시장	수장고	사무실	서비스 공간	총공사비
1만평	3천평	1천2백평	3백평	6백평	6백평	370여 억 원

<표 5> 도입시설 규모산정⁷⁷⁾

영역구분	공간비율	공간구분	소요면적	소계
전시·관람	38.3%	상설전시	300평	1,150평
		기획전시	600평	
		시민갤러리	100평	
		중앙 및 리셉션홀	150평	
수장·작업	11.7%	일반수장고	150평	350평
		특별수장고	100평	
		수장전시실	50평	
		각종 부속시설 및 창고	50평	
교육·자료	7.7%	다목적 강당	100평	230평
		실기 및 교육실	40평	
		자료열람실	43평	

76) 2004년에 발간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 p.216에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기본개요는 대지면적 10,000평에 건물연면적 3,000평의 규모를 지닌 미술관으로, 총 공사비는 건축공사비와 부대비용 그리고 대지구입비를 포함하여 약 370여 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완공된 후 약 40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매년 30억 내외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시설로서의 현대미술관을 제안하였다.

		영상자료실	36평	
		각종 부속 및 지원시설	11평	
연구·조사	6%	학예실장	10평	180평
		학예연구실	60평	
		전산센터	20평	
		보존과학실	30평	
		각종 연구 및 지원시설	60평	
사무·관리	12.4%	관장실 및 실장실	35평	372평
		사무실	57평	
		사무관련시설	26평	
		보안 및 유지시설	15평	
		설비시설(기계정비)	250평	
편의영역	4.6%	편의공간	20평	138평
		식당매점	50평	
		뮤지엄샵	40평	
		각종 지원시설	28평	
공용·공공	19.3%	각종 홀,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580평	580평
연면적				3,000평

또한 전문성을 포함해 대중지향적 미술관으로 성격을 규정한 제주도립미술관의 조직은 학예연구실·기획개발부·관리운영부 등 1관장 1실 2부로 적정인원은 40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건립비용이 370여 억 원이 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현실적 대안책과 이를 뒷받침할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

77) 제주도, 위의 책, p.202.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에 의하면 “제주도립미술관의 설립목적과 기대효과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관장을 중심으로 관리행정과 학예연구실 그리고 기획개발이 동등한 위치로 구성되어야 하며, 실제로 상호협력 혹은 전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⁷⁸⁾라고 제시하고 있다.

<표 6> 제주도립미술관 조직(안)⁷⁹⁾

관장	학예연구실	연구 및 자료조사
		전시운영
		국제네트워크
	기획개발부	사회교육 및 복합문화이벤트
		홍보 마케팅 및 회원관리
		출판 및 디자인
	관리운영부	예산 및 기획
		시설 및 안전관리
		서무 및 인사

<표 7> 제주도립미술관 업무분장 계획(안)⁸⁰⁾

구분	세부구분	분장업무
학예연구실	연구 및 자료	소장품 연구 및 작가연구, 소장품 구입 국내외 미술연구, 수장고 및 소장작품 관리
	전시운영	상설, 기획 등 전시 총괄 기획 및 운영 작품 설치 및 입·반출, 전시연출
	국제 네트워크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미술 네트워크 기획 및 관리 번역 및 통역
	사회교육 및	사회교육 기획 및 수행

78) 제주도, 위의 책, p.105.

79) 제주도, 위의 책, p.106.

기획 개발부	복합문화이벤트	복합문화 이벤트 기획 및 수행 관광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마케팅 및 회원관리	미술관 홍보 및 자원봉사, 인턴, 도슨트 섭외 회원관리
	출판 및 디자인	홍보물 등 출판 기획 및 편집 디자인 관리 전시디자인 기획 및 수행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운영부	예산 및 기획	미술관 증장기 사업 기획 예산 심사, 편성 및 후원회, 위원회 섭외 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기계, 통신, 전시시설 유지 관리 건물, 조경, 환경관리,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
	서무 및 인사	조직 및 인사관리 및 물품, 재산, 문서관리 계약 및 구매관리

3. 미술관 건립 추진경과 분석

(1)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의 기대효과⁸¹⁾

1) 국제문화교류의 거점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에 의하면, 국제문화교류의 거점으로서 미술관 건립의 중요성을 “제주도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현재 한계

80) 제주도, 위의 책, p.107. 제주도립미술관의 조직은 1관장, 1실, 2부, 9팀 구성으로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의 조직은 미술관의 고유기능을 담당하는 핵심인 학예연구실보다 관리행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미술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주도립미술관의 조직은 창조성과 전문성을 드러내 실험적인 기획이 가능한 창조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기획개발부를 신설하여 사회교육 및 복합문화이벤트, 홍보에 주력하는 조직을 제안하였다.

81) 본 연구자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의 기대효과를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국제미술교류의 거점이 될 것과, 이를 토대로 문화관광의 컨텐츠 역할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에 이른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북아 중심의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축제와 현대미술문화를 주도하는 기획전시를 개발하고 도내외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미술관은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의 핵심적 전략시설로 간주될 수 있다.”⁸²⁾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구 50만인 제주도는 2006년 7월부터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외교,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지역을 말한다. 현재 제주도는 사계절 아름다운 비경을 포함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용암동굴과 해안지대에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360개의 오름이 분포해 있는 천혜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지역이다. 제주도는 2005년 한 해에 500만 관광객을 유치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 방문의 해’를 맞이하고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앞으로 5년 뒤인 2010년에는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세우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인 하와이가 작년 한 해 관광객이 700만 명을 유치한 예를 보면 앞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제주도는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이지만 한라산을 포함한 아름다운 비경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제주도의 문화, 역사,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 인프라 시설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천만 관광객 시대의 관광 산업을 더욱 육성시키려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제자유도시로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를 갖춘 문화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세계적 국제자유도시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점을 모아 ‘홍가포르 프

82) 제주도, 위의 책, p.33.



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싱가포르 못지않은 세계적인 관광, 교육, 의료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홍콩 역시 제주도의 1/3밖에 되지 않는 면적을 갖고 있지만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홍콩은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서 국제금융, 물류,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은 물론 한번 가보고 싶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의 공연장 등 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그 중 싱가포르는 국제적 금융 허브 도시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룬 인구 350만의 작은 도시이다.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 물류, 자본의 이동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예술에까지 국가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자유로운 문화, 예술 활동을 펼 수 있는 인적교류의 장소로서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0년 10월에 개관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에스플로네이드(esplanade theatres on the bay singapore)⁸³⁾를 세계적인 국제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에스플로네이드는 공연장과 전시실 및 국제회의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이미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곳이다. 에스플로네이드는 동북아시아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으로 위상을 갖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아르메니안 거리(Armenian Street)에는 과거 폐쇄된 발전소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한 싱가포르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예술교육센터인 서브스테이션(substation)⁸⁴⁾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특히 강조하

83) www.esplanade.com 에스플로네이드는 2002년 10월에 개관하여 세계 문화·예술교류의 센터로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관람객을 위한 실험적인 예술과 함께, 뮤직, 댄스, 영화, 그 밖의 아시아 문화와 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클래식을 좋아하는 관람객을 위해 1,600석의 콘서트 홀과 2,000석의 극장을 갖추고 있다.

84) www.substation.org 서브스테이션은 싱가포르 최초의 독립예술단체로서 1990년에 설립되었다. 서브스테이션의 목적은 미래의 장래성 있는 젊은 싱가포르 예술인의 개발과 양성에 있으며, 또한 국제, 문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다양성과 상호교류의 중요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있는 곳으로 실험적 독립예술인들의 창작실의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다.

제주도 역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문화를 전면에 앞세워 동북아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려면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할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미술관을 건립하여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국제문화교류의 거점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2) 문화관광의 콘텐츠 역할⁸⁵⁾

문화관광은 문화적 콘텐츠를 주 대상으로 하는 관광행위를 가리킨다. 현대에 이르러 관광은 경관관광, 위락관광에서 점차 인문학적인 대상을 통한 문화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형태에 있어 체험관광으로 변화된 지 이미 오래이다. 관광객들은 경치를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방문한 지역의 미술관에서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타지에서 제주도로 관광한다는 것은 제주만이 지니는 관광구매요인에 의한 것이라 볼 때 문화관광의 콘텐츠는 전통적인 문화예술콘텐츠와 현재 제주도 문화의 정수인 문화예술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문화관광 콘텐츠는 제주도의 경우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보다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향후 제주문화관광의 콘텐츠 중 현재의 생명력있는 관광 콘텐츠로 작용할 것이다.

제주도는 풍부한 천혜자원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서 상당한 관광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토개발의 차원에서 관광개발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대두되어 왔다. 특히 관광산업⁸⁶⁾은 지역 변혁의 주도적 산업으

85) 제주도, 위의 책, pp.135~137. 참조.

86) 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관광산업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는 이미 수많은 지역에서 경제개발의 중요한 발전기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로서 국민여가수요의 증대에 힘입어 그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관광부문에
서 제주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8>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

- 섬이라는 지리적·역사적 조건으로 본토 및 대륙과는 다른 특수한 관광매력을 형성
- 한라산을 중심으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성과 특수한 경관
- 육지부와 격리된 독립적인 하나의 지역사회를 형성함으로써 섬의 고유한 전설, 민
화, 생활양식, 언어 등 전통문화와 토속문화가 장기간 전승·보전
-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진 기지적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항공 교통여건의 개선경향
- 섬으로서 관광지의 개발·관리·보호 등 비교적 손쉬운 관광행정
-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수질·해양 등 오염되지
않은 생태환경
- 소득증대, 여가시간의 증가 등으로 국내·외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광
형태도 다양화·고도화·광역화되고 있어 관광개발에 긍정적 역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현재 한계에 이른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쟁
력을 문화관광산업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을 능가하는
동북아 중심의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1) 프로젝트로서의 미술관 건립 인식 부족⁸⁷⁾

87) 우리나라의 박물관·미술관 건립에 대한 인식은 프로그램과 운영 계획 수립에 있기보
다는 건물에 먼저 있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적 발상이 우선하면서 건축물 중심
으로 박물관·미술관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많은 박물관·미술관이 설립되지만, 실제로 전
문적인 기획력과 합리적 운영 방안이 실천되지도 활성화되지도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다면, 이 박물관·미술관 건립 프로젝트가 어떻게 밑그림을 실질적이고도 풍부한 내용으
로 채워주고 그려주는냐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박신의 외, 『문화예술경영 이론
과 실제』 (서울: 생각의 나무, 2002), pp.33~34.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지역에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미술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지난 2000년도에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술관 건립은 고도의 전문 인력이 수행되는 일이므로 도내 미술인 단체만으로 구성된 건립 추진위원회는 건립에 따른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계획과 이를 범 도민의 관심으로 확산시키지 못하였다. 미술관을 포함한 지역문화기반시설 건립은 미술인을 포함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계획을 수립해야 미술관 건립 후 주민의 자긍심과 사회계층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진다. 즉,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이 개관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 및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면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상호 교류, 연대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배경을 ‘지역문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제고,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내걸고 있으나, 정작 신규 시설 건립에만 관심이 있을 뿐 기존 문화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뒷전인 문화행정이 큰 문제⁸⁸⁾로 나타나고 있다.

미술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 결과를 통해 건립에 대한 문화예술계 및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본계획연구가 의례적인 연구결과가 되지 않도록 연구의 사후 평가 작업은 필수이며, 전국단위의 박물관·미술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지역의 좋은 미술관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입지 분석 및 선정에서의 문제

미술관을 건립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미술관을 건립할 것인가’이다. 이는 ‘미술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도 맥을

88)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이 재정사업에서 BTL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지자체의 건립에 대한 일관된 의지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문적인 건립 체계가 포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같이한다. 2004년 1월 28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따르면, “입지를 선정할 때 미술관의 성격규정을 전문성으로 할 것인지 대중성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⁸⁹⁾고 하였다. 그리고 “전문미술관은 외곽에 있어도 되고 대중성을 띤 미술관은 도심에 있어야 한다”⁹⁰⁾는 의견도 있었다.

미술관 입지를 분석할 때, 도심지의 일상적 접근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미술관을 ‘도심지에 건립할 것인가’, ‘도심지 외 지역에 건립할 것인가’ 와 ‘새로운 부지를 선택할 것인지’, ‘역사적으로 오래된 장소나 공장, 폐교 등 기존의 낙후된 건물을 개축해 건립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재개발 차원에서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을 미술관 건립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 건립뿐만 아니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⁹¹⁾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 건립 사례를 보면 입지 분석, 선정에서부터 개축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건립보다 대부분 새로운 부지를 미술관 입지로 선택하고 있다. 이는 건립 후 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도심의 바쁜 생활과 대기오염 등으로 도심에서 벗어난 야외지역의 미술관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관

89) 대부분 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공립미술관들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기에는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 때문에 도립미술관은 우선 대중성에 중점을 두면서 전문성은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90)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띤 미술관 역시 복합기능의 형태로 가고 있으며 근래에는 전문미술관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추세이다.

91) 우리나라 미술관 건립에서 리노베이션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를 위한 워크샵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어떤 지역에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지역의 특수한 역사성을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며 과제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리노베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축적된 이미지 즉 공간에 대한 역사성을 재건축이란 이유로 한꺼번에 밀어버리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한 공간이 신축되거나 개축될 때 그 공간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이미지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단⁹²⁾되어 일상의 접근성 못지않게 자연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입지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건립되는 공립미술관은 이러한 입지분석을 토대로 건립되어야 하며 기존의 역사성이 있는 건물을 개축하여 건립된다면 새로운 미술관 문화를 만들 수 있다.

<표 9> 입지분석 형태(1)⁹³⁾

입지분석 형태 (1)		
도심 내 위치	광장형태의 미술관	풍피두센터, 빌바오구겐하임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가나자와21세기현대미술관, 팔레드도쿄 등
도심 외 위치	공원형태의 미술관	나오시마현대미술관,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미호미술관, 홈부로히 섬 박물관, 게티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92) 1986년에 건립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건립 초기부터 서울의 중심부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금까지 접근성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무조건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없다. 지하철 4호선 개통과 함께 셔틀버스와 코끼리 열차를 타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미술관으로 가는 접근성은 운치가 있다. LA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게티 미술관(The J. Paul Getty Museum)과 일본의 나오시마 현대미술관은 미술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기구를 타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미술관으로 가는 대중교통과 일상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많은 것을 보면 접근성보다 소장품을 포함해 미술관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미술관을 방문하여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서비스 기능이 풍부하기 때문에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3) 우리나라 미술관 입지 분석 및 선정 시 일상의 접근성만 들어 자연의 접근성과 주변

<표 10> 입지분석 형태(2)

입지분석 형태 (2)	
새 부지	대다수 미술관들은 새 부지에 건립되었음.
개축(보존가치가 있는 건축을 증개축하거나 확장)	팔레드 도쿄, 서브스테이션, 서울시립미술관, Mass MoCA, 테이트 모던, 오르세 미술관, 튜린의 링고토, 뉴욕의 디아아트센터, 샤프하우젠의 현대미술관, 제네바의 현대미술관 등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지는 2005년에 선정되었다. 제주시 연동 신비의 도로 부근 12,000평에 건립된다. 미술관 입지로 선정된 곳은 한라수목원과 도깨비도로의 인접지역으로 현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현 건립지는 1만2천평이 되는 규모 있는 부지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의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21세기 현대미술관은 연구, 조사, 전시, 보존의 기능을 뛰어넘어 다양한 체험, 학습으로 끊임없이 변화 가능한 창의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관에 대한 미술인과 도민의 기대가 커질수록 앞으로 공간의 확장은 중요하게 부각 될 것이다. 그러나 현 부지는 미래의 확장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를 위한 자문회의에 따르면, “미술관 적정 규모 산정은 미술관 건립 초기부터 향후 운영에 대한 예산을 생 각하여 부지는 넓게 확보하되 건물은 차후 증축 및 확장을 염두한 건립계획을 가장 이상적 대안”이라 하였다. 이는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은 점점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확장을 위한 부지를 처음부터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 다른 유관시설과 연계한, 접근성이 양호한 곳, 도시정비개발효과가 좋은 곳, 장소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좋은 곳, 확장가능성이 유리한 곳, 사업의 용

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을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입지 분석 시 입지 분석 형태를 (1), (2)로 정리해 보았다.



이성이 좋은 곳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현재 선정된 부지는 한라수목원과 도깨비도로 인근 지역으로 관광의 인지도는 있으나, 각종 문화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현재 미술관 부지는 러브랜드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건립된 곳에 같은 규모로 위치해 있어 향후 미술관 이미지와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 취약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⁹⁴⁾된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Bilbao)⁹⁵⁾은 낙후된 지역에 미술관을 건립하여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일부러 불모지의 땅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미술관 부지 선정에 있어 제주도의 역사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어야 한다.⁹⁶⁾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Tate Modern)⁹⁷⁾ 역시 개축을 통한 건립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면서도 오래된 건물을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미술관을 건립할 때 ‘부지의 역사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94) 전북도립미술관의 경우 관람객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들이고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가족단위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현 부지는 처음부터 결점을 안고 있다고 보인다.

95) 미술관의 체인화라는 생각으로 뉴욕, 베니스, 베를린, 라스베이거스의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 이후 다섯 번째로 확장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립 초기에 막대한 예산낭비와 문화적 중속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 속에서도 미술관건립 프로젝트 실현으로 지역 이미지는 물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였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예술품을 영구적인 장소에 있는 대신 다른 지역에 순환시키는 형태로 전시하며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 문화를 만들고 있다. 빌바오 건립프로젝트는 방문객이 없어 근근이 명맥만 유지해오던 빌바오 시내의 다른 소규모 박물관 및 미술관들까지 활력을 찾는 원동력이 되어 지역 이미지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96) 입지분석에 있어 ‘장소성’은 중요하다. 이는 미술관이 건립될 입지에 관한 인지도를 말함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역사적, 상징적, 인문 사회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는 입지 분석에 있어 중요하다.

97) 미술관 건립으로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하며 도시를 활성화 시킨 예로 2000년 5월에 개관한 영국의 국립미술관인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꼽을 수 있다. 테이트 모던이 위치한 이 지역은 원래 교통도 불편하며 다른 문화시설로부터 고립된 지역이었다. 낙후된 지역을 미술관 건립으로 활성화시킨다는 프로젝트는 건립 구상에서부터 미술관 건물을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건물을 개축하여 도시를 변화시키자는 의견이 적극 받아들여졌다.

세 번째,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자연과 문화를 미술관 건립과 연계한다면 제주도만의 독특한 미술관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좀 더 타당한 부지를 선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자연친화적이며 생태적 접근이 가능하고 미술관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삶을 확보하고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미술관 건립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과제로 남는다.

<표 11> 미술관 입지선정 기준⁹⁸⁾

접근성	‘누구를 위한 미술관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공공미술관은 대중을 위한 것이 전제가 되고, 이에 따른 일상성을 확보해야 한다. 접근성은 도시중심부에 건립했을 때, 보행과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한지, 외곽에 건립했을 때 교통 이동시간과 교통편의에 대한 사전조사와 기존 도로체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주변 환경	자연조건과 환경의 쾌적성이란 자연적·물리적 조건과 향후 입지의 문화공간의 개발가능성, 주변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장소의 인지도 및 이미지	미술관의 상징적 의미와 인식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미술관 입지, 지역의 역사적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 문화적 잠재력 등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이미지 및 상징을 고려해야 한다. 또는 관광 등 인문학적 특성이 있는 장소로서의 이미지는 현대미술관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기존 또는 향후 문화시설의 분포와 인근의 유관시설인 박물관, 연구소, 대학교 등 각종 문화시설과의 프로그램 교환이 가능하여 미술관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갖가지 문화행사를 겸할 수 있는 장소로 문화복합체적 의미를 배가시켜 문화인구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도시정비·개발효과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지역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 주변지역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확장가능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술관에 소장품이 처음 예상보다 많아지

	<p>거나 미술관의 사회교육 기능이 확대되면서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와 기능을 소화할 수 있도록 확장하려면 주변대지에 확장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 즉, 미술관은 하나의 완성된 건물로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 전시, 보관, 수장, 교육,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공간의 확장이 요구된다. 또한, 미술관은 지속적인 성장이 요구되는데, 장래 증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확장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야 한다.</p>
<p>사업시행의 용이성</p>	<p>대지의 매입 및 보상의 문제와 조기착공의 가능성, 주변의 기반 시설상황, 민원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해야 한다.</p>

3) 소장품 정책마련 미흡

미술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소장품을 갖고 있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만큼 소장품은 미술관의 특성과 성격을 나타내므로 미술관건립 계획부터 소장품 정책마련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은 소장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장품에 따라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건물부터 짓고 난 후 기증과 구매에 의해 소장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립미술관건립기본계획연구(2001)에 의하면, “좋은 소장품을 보유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미술관 운영의 첫 출발이다. 연구, 전시, 교육 등 모든 미술관의 활동과 프로그램은 소장품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미술관의 소장 작품은 우선 미술관의 설립목적과 임무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학문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미술자료여야 한다. 이 외에도 작품을 수집하려면 수집 자료의 범위, 작품 수집의 절차, 수집 작품의 관리 등 수집업무 전반에 걸친 기본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⁹⁸⁾라고 명시하고 있다.

98) 제주도, 위의 책, pp.158~159.



또한 소장 작품 수집의 기본방향이 결정되었으면, “소장 작품의 장르, 범위, 시기, 지역, 매체, 크기 등을 고려하여 소장대상 작품을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큰 미술관이라도 모든 미술자료를 소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 공간, 예산 등 제한된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술품의 수집은 미술관의 성격, 수장 규모, 전문인력 확보 여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소장 작품은 매체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공간 및 관리시설 등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작품 수집 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¹⁰⁰⁾라고 소장품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의 상설전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국·공립미술관 상설전시현황 (2005년)¹⁰¹⁾

국·공립미술관 상설전시현황		
국립현대미술관	상설 전시	상설특별전(김영주 10주기 기념 상설특별전) 램프코어(백남준의 다다이즘) 원형전시실
서울시립미술관	천경자 “혼(魂)”	1998년, 천경자 화백이 1940부터 90년대 후반작품 93점을 기증, 작품기증을 기념하고자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의 신축개관에 맞추어 열게 됨. (기록, 사진, 영상물 포함)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기증작품실	본관 2층에 오지호, 허백련 전시실과 한국미술사에서 잊혀질 뻔했던 재일교포 작품이 하정웅 기증작품실(祈禱의 컬렉션)에 전시되어 있음.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변시지 작품	상설전시실

99) 경기도, 『경기도립미술관건립기본계획연구』 (경기도, 2001), p.101.

100) 경기도, 위의 책, p.102.

새로 건립하고 있는 미술관은 소장품의 확보가 어렵긴 하지만 향후 소장품 정책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법상 100점이 있어야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된다는 조건으로 무리하게 기증을 받는 것은 문제이다.

최근 미술관 동향을 살펴보면, 현대미술관의 새로운 시도들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개념을 도입한 시각세계를 보여주는 진보적 기획전을 중심으로 미술관 특성을 살리고 있다. 기획전 중심은 관람객 동기유발은 물론 활기찬 미술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또한 최근 건립하고 있는 미술관은 소장품이 없는 미술관¹⁰²⁾도 있으나 소장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술관들은 소장품 확보는 물론 소장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소장품 없이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술관으로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¹⁰³⁾와 벨레뷰 미술관(Bellevue Art Museum)¹⁰⁴⁾을 들 수 있다.

팔레 드 도쿄는 소장품이 없는데 현대 예술의 현재를 소장하고 현재의 작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과 현대미술의 실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특징 없는 소장품을 소장하면서 제

101) 2005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 국·공립미술관의 소장품 현황을 조사하였다.

102) 소장품 없는 기획중심의 미술관 운영은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확보될 때 가능한 일이다. 지역의 도립미술관은 공립미술관으로서 전시기획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소장품을 수집해야 하는 일도 중요하므로 전시기획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양한 기획으로 특성화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장품을 수집하고 증대해 나가는 과정도 공립미술관인 도립미술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103) 팔레 드 도쿄는 제롬 상스와 니콜라 부리오, 두 명의 젊은 미술평론가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시작된 새로운 팔레 드 도쿄 프로젝트로부터 출발해 뜻을 같이하는 두명의 젊은 건축가(Lscaton, Vassal)에 의하여 실내 전체가 재건축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다른 대형미술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예산과 3년간의 짧은 준비과정을 거쳐 개관한 팔레 드 도쿄는 단순한 현대미술 작품의 감상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현대미술문화 창조의 열린 공간이라는 의지로 기획되었다.

104) 2001년 1월에 개관한 미국 워싱턴주의 벨레뷰 미술관은 미술품의 수집 대신 다이나믹한 현대 시각 미술의 전시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어 영구 소장품이 없다. 이 미술관의 임무는 지역 예술 단체 및 학교들과 합작해, 지역사회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한 미술관 성격에 맞는 소장품 구입의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국내 공공미술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⁰⁵⁾

아직 미술관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소장품 정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또한 현장 중심의 기획전만으로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국립미술관의 성격을 도외시킬 수 없는 상황이며 전시기획으로 미술관을 운영하기에는 예산 확보와 인력에 대한 문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소장품 상설전시는 좋은 작품들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설전시의 새로운 유형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설전시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해놓게 되면 컬렉션의 교체전시가 어렵고, 동시에 새로운 전시기법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전시자체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기획전 형식으로 3년이나 5년 단위로 새롭게 컬렉션을 꾸며 전시를 바꾸는 상설전시도 가능할 것이다.¹⁰⁶⁾

현재 제주도는 장리석 작품 110점을 기증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건립추진과정에서 미술관 성격규정과 소장품 수집에 대한 기본방향, 미술관의 장기적인 수집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증받은 점과 현재 작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증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 기증을 받을 때 소장품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증을 받는 타당한 원칙을 밝아야 한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증받은 작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하고 있다. 한 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미술관 운영을 생각하면 미술관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기부, 기증, 자원봉사 등의 형태들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증의 문제점은 한번 기증을 받게 되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너나할 것 없이 기증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장품 보존과 구입에 따른 한 해 예산과 소장공간 등 소장품 정책 마련과 소장품 심의 절차는 중요하다.

105) 채은영, 「마로니에 미술관 활성화 방안 연구」(경희대 경영대학원, 2003), p.45.

106) 박신의 외, 위의 책, p.42.



<표 13> 작품기증 시 고려사항¹⁰⁷⁾

기증 시 고려 사항
<p>1) 기증 작품은 기증의사 표명 시, 정식 요청 전에 기증자나 그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p> <p>조건부 기증은 수용하지 말 것(예: 기증품의 상설전시, 기증품은 모두 전시, 기증자의 이름 명시 등)</p> <p>약정서에 “조건 없음”이란 내용 명시</p> <p>작품을 위탁받을 시에는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고,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대여는 받아들이지 말 것.</p>
<p>2) 작품을 수령하기 전, 소장품의 수준, 미술관의 수집방침이나 관심분야, 기증조건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p> <p>예) 작품 수준, 크기, 상태, 유사 형태의 작품 존재 유무, 법적인 소유권, 관련 정보의 이용가능성, 가격</p>
<p>3) 미술관의 모든 기증품, 구매 작품, 대여된 것은 합의된 절차에 의해 신중하게 문서화 되어야 하며, 적절한 서류 없이는 추후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권리취득이 어렵다.</p>

4) BTL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문화관광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15개 분야 23조 원 규모의 사회 기반시설사업을 종합투자계획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미술관건립에 민간 자본유치사업인 BTL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미술관으로 대구시립미술관과 제주도립미술관이 BTL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박물관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과 과주시립역사박물관이 선정되었다. 제주도는 BTL사업으로 제주도립미술관(2백억원)뿐만 아니라 서귀포종합문화센터(2백2억원)와 제주종합문화센터(1백50억원)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07) 전라북도, 『전북도립미술관건립 기본계획연구』 (전라북도, 2001), p.73.



<표 14> 문화관광부 2005년 BTL 대상 사업¹⁰⁸⁾

구분	시설명
도서관	인천시립도서관, 경기도 파주교하도서관
박물관	파주시립역사박물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미술관	대구시립미술관(선도사업), 제주도립미술관
문예회관	영주시종합문화예술회관, 의왕시문화예술회관, 부평구문예회관
복합시설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선도),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경주문화예술회관, 전주전통생활문화프라자, 서귀포종합문화센터, 안동문화예술회관, 제주종합문화센터, 신안군송공산ArtLand

<표 15> BTL사업으로 선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¹⁰⁹⁾

사업명	총사업비	주무관청	비고
대구시립미술관	816억 원	대구시	1단계 사업(선도사업)
제주도립미술관	200억 원	제주도	2단계 사업
부산영화체험박물관	432억 원	부산시	3단계 사업
파주시립역사박물관	252억 원	파주시	3단계 사업

BTL사업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민간은 시설완공 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정부는 일정 기간동안 시

108) 기획예산처 www.moe.go.kr

109) 기획예산처 www.moe.go.kr

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¹¹⁰⁾을 말한다.

원래 이 사업은 도로, 항만, 통신, 학교와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한정된 재정으로 추진이 힘든 사업들을 민간자금 투자를 통해 긴급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 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TL사업의 민간참여 체계는 첫째,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시설을 선정하고 사업기본계획을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둘째, 민간사업자는 특정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해 사업에 참여한다. 셋째, 사업자로 선정된 SPC가 자기 책임 하에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약정 기간 동안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SPC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게 된다.¹¹¹⁾

또한 2005년 10월 실시되고 있는 BTL제도는 주무관청에서 단위사업별로 설계 창의성 및 부대사업 제안수준을 제시하는 수준(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에서 민간이 관여하고 있으며 시설 유지보수, 청소, 경비, 조경관리, 건물안전관리, 수도·전기 기타 관리(실시협약시 결정)를 민간 운영범위로 설정하고 있다.¹¹²⁾

그리고 BTL사업을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빨리 공급할 수 있고 시중 부동산자금을 끌어내는 것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이 건물을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부실공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공기지연이나 공사비 증액 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¹¹³⁾하고 있다.

110) 기획예산처 www.mo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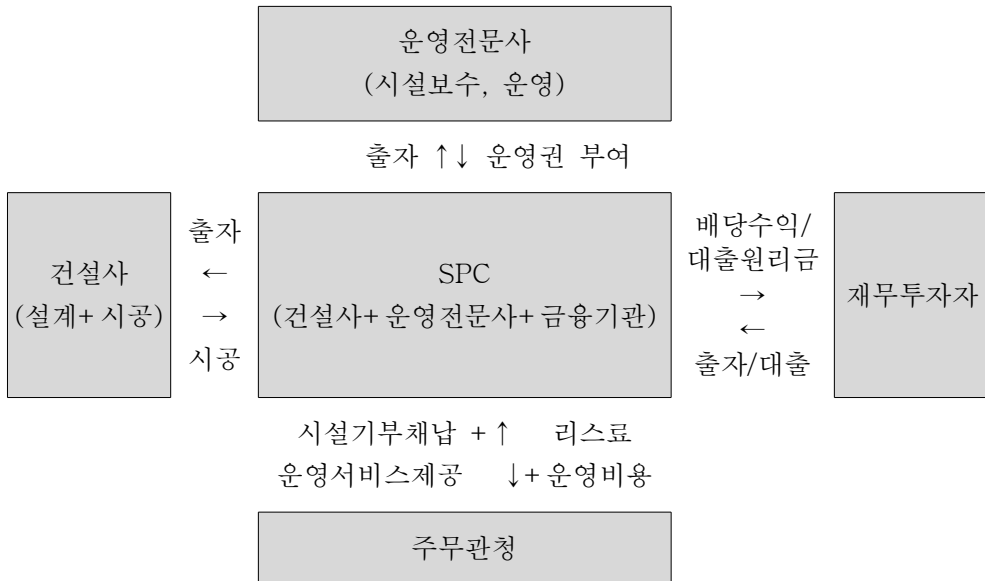
111) 기획예산처 www.moe.go.kr

112)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선진국을 위한 투자, 미술관 정책』(국립현대미술관, 2005), pp.260~261.

113) 기획예산처 www.moe.go.kr



<표 16> BTL사업의 민간참여 체계¹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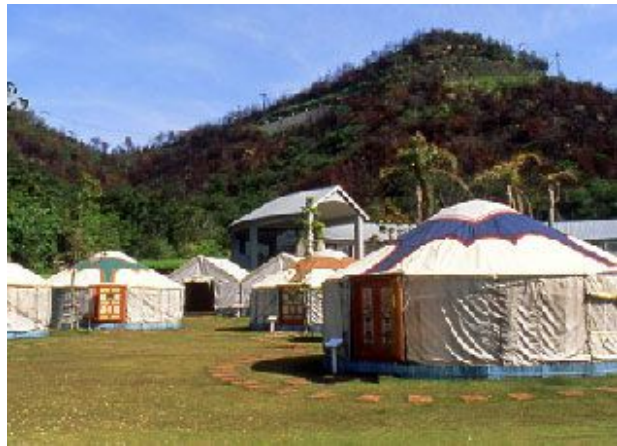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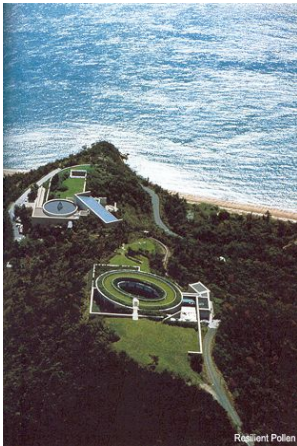
그러나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실시협약 표준안도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립미술관을 BTL로 실시하고 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많은 시행착오와 엄청난 재정부담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이해와 대상사업선정, 세부시행지침 수립 등이 필요하다.

BTL사업이나 재정사업이나 미술관을 건립할 때는 막대한 건축비는 물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미술관 유지뿐만 아니라 미술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이 늘어나므로 그에 따른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14) 기획예산처 www.moe.go.kr

IV. 유사사례 분석

1. 지정학적 측면 : 나오시마현대미술관¹¹⁵⁾(Benesse House Naoshima Contemporary Art Museum)



<그림 1, 2> 나오시마 현대미술관

<표 17> 나오시마현대미술관 시설 개요

위치 : Naoshima Contemporary Art Museum, Benesse Island Gotanji,
Naoshima-cho, Kagawa-gun, Kagawa Prefecture 761-3110, Japan
대지면적 : 본관 44,700㎡(13,521평) / 별관 55,369.0㎡(16,144평)
건축면적 : 본관 1,775.5㎡(537평) / 별관 693.1㎡(20평)
연면적 : 본관 3,643.4㎡(1,102평) / 별관 597.8㎡(180평)
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설계기간 : 1988. 5 ~ 1990. 10

115) www.naoshima-is.co.jp 홈페이지 내용 참조.

시공기간 : 1990. 10 - 1992. 3

시설 : 뮤지엄 레스토랑, Cafe, 뮤지엄 숍, SPA, guest rooms, 도서관

개관시간 : 09:00~20:00

건축가 : Tadao Ando

일본의 나가사키 현, 작은 섬에 있는 나오시마 현대미술관은 섬이라는 특수성을 잘 살린 현대미술관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나오시마 미술관을 중심으로 오래된 가옥들을 갤러리로 만들면서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나오시마 현대미술관은 1988년 본관인 미술관을 착공하여 1992년에 개관하고, 별관인 게스트 하우스(annex benesse house)는 1995년에 완공하였다. 7년에 걸쳐 건립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며 건립한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은 일명 베네세 아일랜드라고도 하며 미술관과 호텔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 미술관의 정식 명칭은 'Benesse House Naoshima Contemporary Art Museum'이다. 'Benesse'란 'live well'을 의미한다.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은 방문객들이 배편으로 도착하는 즉시 미술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부두를 걸어 올라간 방문객들은 계단식 광장에 들어서게 된다. 이 광장은 미술관 출입구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옥외 공연무대로도 활용되며, 그 지하공간은 별관으로 사용된다. 광장의 계단을 올라간 후에야 본관의 석별이 눈에 들어온다. 호텔 건물, 갤러리, 테라스 모두 바다를 향해 개방되어 있어 미술관을 오가는 배와 일몰이 장관을 이루는 고요한 바다 풍경을 내부 공간으로 끌어들인다. 그 자체가 야외에 전시된 조각품처럼 광활한 자연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미술관은 전체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산책로 곳곳에 전망 좋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풍경을 경험하게 한다.¹¹⁶⁾

116) 서상우, 위의 책, p.170.

나오시마현대미술관 건립은 1989년 두 사람에 의한 ‘나오시마 건립계획’에서 시작되었다. 후쿠다케 출판사(Fukutake Publishing Co. Ltd) 창립자인 후쿠다케(Tetsuhiko Fukutake)는 전 세계의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는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나오시마의 시장인 미야케(Chikatsugu Miyake)는 나오시마가 순수하고 교육적인 문화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꿈을 가졌다. 이들은 전 세계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 Inland Sea 섬에 공간을 창조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최초의 행동은 Fukutake 출판사 직원들이 운영하는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결국 나오시마 현대미술관 건립은 나오시마 남쪽 일대의 토지를 출판사가 사들이고 1988년 마을 의회에 “사람과 문화를 키우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나오시마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나오시마 현대미술관을 포함한 나오시마 문화촌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다.¹¹⁷⁾

1992년에 베네세 하우스가 현대미술관을 위한 게스트 룸과 함께 전시공간으로 개관하였다. 베네세 하우스(Benesse House)는 자연과 예술, 건축이 공존하는 컨셉으로 Benesse Art Site Naoshima의 주요시설이다. 게스트 룸과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바가 있는 이곳은 방문객이 나오시마 공간과 시간의 한복판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리고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이란 이름으로 예술 활동이 시작된 것이 이때부터이며, 많은 전시가 1992년부터 1995년에 걸쳐 개최되었다. 특히, 1994년 ‘The Out of Bounds’ 전시는 미술관 건물 밖의 예술 활동으로 개최되었다.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의 특징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이곳의 자연환경, 그리고 안도 다다오의 건축과 서로 조화를 이룬 전시 프로젝트에 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미술관측이 직접 커미셔닝한 작가들에 의해 그룹을 이룬 상설 전시에 있다. 예술가로 하여금 베네세 하우스를 방문하게 한 다음, 그들이 원하는 위치를

117) 서상우, 『새로운 뮤지엄건축 NEW MUSEUM ARCHITECTURE』 (서울: CA현대건축사, 2002), p.168.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한다. 예술작품은 틀에 박힌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미술관 주변 숲과 해안을 따라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한 작품은 나오시마현대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은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 그리고 컨템포러리 작품으로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미술관이다. 나오시마 현대미술관은 미술관 관람시간이 끝난 후 미술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이곳을 숙박하는 이들에게만 주는 특권으로 미술관에 불을 환하게 밝혀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세토 섬(Seto Inland)에서 잡은 싱싱한 일본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은 이곳을 방문한 관객으로 하여금 세련된 분위기에서 여유로운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저녁식사는 예약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레스토랑과 달리 뮤지엄 카페에서는 다양한 와인과 간단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으며 특히 날씨가 좋은 날이면 테라스 의자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미술관 아래쪽 옥외공간에는 ‘파오’라는 시설을 설치해 미술관 관람시간이 끝난 후 청소년을 위한 캠프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2. 건립방식 측면 : 가나가와현립 근대미술관¹¹⁸⁾ (The Museum of Modern Art Kamakura and Hayama)

118)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건립 사례분석은 자료가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홈페이지 (www.moma.pref.kanagawa.jp/)내용을 참조하였으며, 김순선, 『국제적 문화도시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정책 - 일본 가나가와 현』(문화도시 문화복지, 1998, Vol 34호)과 김규원, 『문화시설 민간투자는 ‘서비스구매 사업’ : 일본에서 배우는 BTL사례』(문화도시, 문화복지, 2006, Vol 175호)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림 3, 4>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표 18>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시설 개요

KAMAKURA

대지면적 : 10,252.66㎡(3,101평)

건물연면적 : 2,435.54㎡(736평)

전시실 : 857.33㎡(259평)

수장고 : 195.52㎡(59평)

강당 : 184.55㎡(55평)

구조 :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규모 : 2 stories above ground

건축가 : Junzo Sakakura

General Constructor : Mabuchi Kensetsu Inc. / Maeda Kensetsu Kogy Inc.
(Extension)

개관연도 : May 1951 / May 1966(Extension)

HAYAMA

The Museum of Modern Art, Hayama

주소: 2208-1, Isshiki, Hayama, Kanagawa 240-0111

시설 : Art Library, Restaurant, Museum Shop

대지면적 : 14,971.84㎡(4,528평)

KAMAKURA ANNEX

대지면적 : 4,937.94m²(1,493평)

건물연면적 : 1,599.8m²(483평)

전시실 : 483m²(146평)

수장고 : 393m²(118평)강당 : 34m²(10평)

도서관 : 32m²(9평)

구조 :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규모 : 2 stories above ground

건축가 : Otaka Kenchiku Sekkei Jimusho Inc.

General Constructor : Maeda Kensetsu Kogyo Inc.

Completion : July 1984

일본에서 민자사업을 통한 최초의 미술관은 동경 근교에 있는 가나가와 근대현립미술관이다. 이 지역은 일왕의 별장이 있는 근교 휴양지로 미술관 역시 절벽 위에 건립되어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미술관이다.

가나가와현은 일본 열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약 2천 412km²로 일본 전국에서 3번째로 큰 현이다. 수도인 도쿄에 인접하여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바다와 산 등의 자연환경이 풍요로운 곳이다. 가나가와현은 오랜 역사와 풍토에 의하여 문학가 및 예술가를 필두로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940년대에 가나가와에서는 근대미술관 및 현립음악당이 건설되는 등 문화의 선진현으로서의 기초가 일찍부터 다듬어졌다.¹¹⁹⁾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은 건립된 50년 전부터 유명한 공립미술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를 통한 하야마 신관과 가마쿠라 별관의 신축, 가마쿠라 본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문화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119) 김순선, 『국제적 문화도시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정책-일본 가나가와 현』(문화도시 문화복지, 1998, Vol 34호)

하야마 신관의 경우, 건설한 후 30년 동안 임대료를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지급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에 반해 가마쿠라 본관 및 별관은 건설 직후 정부가 사업비를 지불해서 양도를 받되 유지관리는 각각 15년, 3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다. 하야마 신관 시설은 연면적 약 2,151평, 가마쿠라 본관과 별관이 73만 7,480평으로 되어 있다. 전반적인 사업 기간은 2001년 2월 입찰공고가 있는 후 2003년 10월 개관해서 2033년까지 사업완료와 시설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¹²⁰⁾

제주도립미술관은 BTL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대구시립미술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BTL사업 사례 중 유일하게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를 하게 되었는데, 가나가와 역시 이미 실시설계가 다 끝난 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설계, 시공하기 위해서 설계안을 제안받게 되나, 대구시나 가나가와 현은 동일하게 실시 설계된 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가격을 낮추고 민간사업자의 효율성 위주로 하여 설계를 창의적으로 해오는 것이 이 사업의 장점으로 볼 수 있으나 두 미술관은 원래 설계대로 진행되었다. 가격을 낮추고 민간사업자의 효율성 위주로 하여 설계를 창의적으로 해오는 것이 이러한 사업들의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문화시설의 경우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되는 디자인을 시민과 지역이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¹²¹⁾

가나가와에서 배울 점은 유지관리를 맡은 민간사업자와 미술관 측과의 열린 소통을 위한 노력 부분이다. 즉, 미술관은 민간 사업자를 이해하고 민간사업자들은 미술관 운영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만들었다. 서로 매우 다른 영역인 건설, 유지관리와

120) 김규원, 『문화시설 민간투자는 ‘서비스구매 사업’ : 일본에서 배우는 BTL사례』 (문화도시 문화복지, 2006, Vol 175호)

121) 김규원, 위의 책. 참조.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투명하고 합리적인 협약이 필요하지만 이를 받쳐주는 큰 기둥은 서로의 신뢰를 위한 열린 노력이며, 이것이 바로 BTL을 통해 조성되는 문화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¹²²⁾

가나가와 미술관의 특징은 최상의 서비스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세련된 뮤지엄 숍과 카페 레스토랑은 작품을 감상한 후 편하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준다. 결국 미술관은 의무적으로 찾아가는 문화시설이 아니라 언제든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나가와는 현대미술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 사례의 시사점은 민간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지역의 재정,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공간 사이의 기능에 대한 연구, 디자인까지 오랜 기간 준비했을 때 우수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사업은 일본에서는 하드웨어 위주가 아닌 서비스구매사업이라는 점이다.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주 콘텐츠까지 맡아서 민간이 운영할 경우 상업적인 회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특히 복지 및 청소년 시설들-비영리단체들이 민간사업자들과 함께 공공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는 점은 민간의 몫이라도 더욱 공공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철저하고 투명한 선정 지표의 제시, 선정 과정의 체계화와 사후 관리로서 평가 시스템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민간의 효율성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고 있다.¹²³⁾

가나가와현은 지역의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재단법인)가나가와 예술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과 누구라도 가까운 지역에서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예술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시정촌에 재원을 지원하는 ‘예술에 의한 마을창조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활동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촌이 건설하는 문화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고향 가나가와를 재발견, 재인식케 하기 위해 향

122) 김규원, 위의 책, 참조.

123) 김규원, 위의 책, 참조.

토문화자료를 집대성하는 등 지금까지 일부 계층의 향유에 그쳤던 문화예술의 혜택을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¹²⁴⁾

3. 건립주체 측면

(1) 경남도립미술관¹²⁵⁾ (Gyeongnam Art Museum)



<그림 5> 경남도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은 창원시에 위치해 있으며 부근에는 성산 아트홀과 경남 도청, 경남 도의회, 경찰청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곳에 있다. 이곳은 창원, 마산, 진해 등 각 지역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경남도립미술관은 ‘경제성장에 걸 맞는 320만 도민의 미술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도민으로서의 긍지 고양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여는 지역 문화발전의 사업’으로 건립되었다.

124) 김순선, 위의 책, 참조.

125) <http://www.gam.go.kr> 홈페이지 내용 참조.

<표 19> 경남도립미술관 시설 개요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2번지(공원지역)
개관연도 : 2001년 4월 4일 기공
2002년 12월 27일 미술관성격성립을 위한 공청회
2003년 2월 17일 '경남도립미술관' 으로 명칭 확정
2004년 6월 23일 개관
대지면적 : 4,741평
건물연면적 : 2,688평
전시장 면적 : 제1전시실 539㎡(163평), 제2전시실 370㎡(111평), 제3전시실 539㎡(163평), 제4전시실 370㎡(111평), 제5전시실 539㎡(163평) 총 711평(제1~5전시실), 특별전시실 112㎡(33평)
옥외 조각 전시장 : 522㎡(157평)
수장고 면적 : 728㎡(220평), 임시 수장고 61.08㎡(18평)
주차장 면적 : 1,330㎡(402평)
소요예산 : 196억 원(국비 33억, 교부세, 30억, 도비 133억)
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대형 미술관)
시설 : 다목적 홀 307㎡(92평), 영상전시실 72㎡(21평), 시청각실 74㎡(22평) 실기실, 어린이 미술교실, 도서자료실 158.40㎡(47평)
소장품 : 2006년 11월 현재 348점

경남도립미술관은 건립 당시 현 미술관 부지가 경남도청 도유지 이므로 부지 매입비는 없었다. 사유지는 조금 있었으나 매입하여 건립하였다. 부지매입비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으나 인근에 위치한 성산 아트홀에 이미 공연장과 전시장이 조성되어 있어 미술관건립에 대한 중복성과 차별화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경남도립미술관은 창원시내에 위치해 있어 미술관의 접근성은 좋으나 관공서 부근에 위치해 있어 관람객들이 관공서에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또한 이곳을 방문하는 대다수 관람객들은 시내에 있어 답답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126)

이곳의 하루 관람객은 100~200명 정도이며 주말에는 천 명 정도 관람하고 있다. 2005년 4월 22일 금요일 관람객은 2,000명이었는데 미술관 개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술관 부지가 적다 보니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미술관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외 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현재 야외공연장을 조성하지 못해 현대미술관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005년 현재 미술관 직원은 17명이며 이 인원으로서는 국제전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립미술관 조직은 관장을 중심으로 운영과장, 그 산하기구에 관리과와 학예담당계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작품평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도립미술관은 관리중심의 조직유형을 보여 자유로운 전시기획 등에 제한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전시기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시를 담당하는 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관리 중심형 조직은 신속한 행정력은 보일 수 있으나 업무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직의 이동이 잦아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편 경남도립미술관은 어린이 미술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어린이 미술교실은 단순한 실기교육만이 아니라 작품 감상 능력, 작품 평가, 실기과정, 미술이론을 바탕으로 발표의욕과 창의력, 비평능력까지 함께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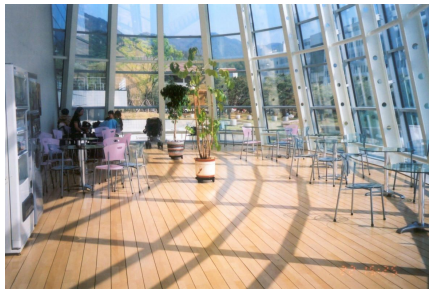
경남도립미술관은 춘하추동 전시기획예산은 2억 원을 신청하였는데 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작품 구입 예산 5억 원(2004년, 소장품 298점)으로 유상구입이 77점, 무상 기증이 30점, 무상 위탁 132점(88점 기증함)으로 되어 있다.127)

126)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장과의 인터뷰 내용. (2005년 4월 22일)

127)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장과의 인터뷰 내용. (2005년 4월 22일)

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계획의 기본방침은 경남미술사를 정립하고 경남지역 출신의 작고 및 원로작가들의 작품을 원칙적으로 수집하는 데 있다. 그동안 자료조사 등을 통한 구입대상 작품들은 작품평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구입해 왔다.¹²⁸⁾ <경남미술의 어제와 오늘전>으로 개관전을 개최하였고, 최근 토요일영화상영회를 하고 있다. 뮤지엄 샵은 조성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은 되고 있지 않다.

경남도립미술관은 건립추진과정에서 미술관 성격정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경남도립미술관이란 명칭을 확정하면서 건립하였다.



<그림 6> 카페테리아



<그림 7> 도서자료실

<표 20> 2004년 경남도립미술관 개관기념전 내용

상설전	소장작품전(6월 23일~9월 1일), 제2전시실(2층 370㎡, 111평), 회화48점.
기획전	- site and sight-작가현장전(6월 23일~9월25일) 제1전시실(1층 539㎡, 163평), 200호 기준 회화 17점 - 경남미술의 어제와 오늘전 (6월 23일~8월 25일) 제3,4,5전시실, 249점(회화 231점, 조각 18점) - 조각공원 작은모형전 (6월 23일~ 12월 29일) 전시홀(2층, 100㎡)30평, 00, 03년 조각공원 조성사업 모형 32점 - 생활과 예술-16세기 이전 경남의 찻그릇展 특별전시실(2층, 112㎡, 33평), 도자기류를 포함한 찻그릇과 차도구 56점

128) 경남도립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2) 전북도립미술관¹²⁹⁾ (Jeonbuk Province Art Museum)



<그림 8, 9> 전북도립미술관

<표 21> 전북도립미술관 시설 개요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8-7 모악산 기슭
개관연도 : 2001년 12월 착공, 2004년 10월 개관
부지 : 20,982.60㎡(6,347평)
건물면적 : 3,917.58㎡(1,185평)
연면적 : 6,904.81㎡(2,088평)
전시실 면적 : 448평
야외 조각장 : 500평
수장면적 : 371.5㎡(112평)
주차장 면적 : 441평(75대)
사업비 : 총 사업비 173억(국비46억, 교부세 60억)
규모 : 지하1층 지상 2층
시설: 하역장 289㎡(87평), 보존처리실 55㎡(16평), 어린이 실습실 205㎡(62평) 강의실 2(50석/30석 규모) 146㎡(44평), 강당(195석) 297㎡(89평) 카페테리아, 도서자료실, 뮤지엄샵, 야외공연장 등
소장품 현황 : 2006년 11월 현재 402점

전북도립미술관은 경북도립미술관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공

129) www.jbartmuse.go.kr 홈페이지 내용 참조.

립미술관이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구이면 엄피 모악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미술관에서 앞을 내다보면 호수가 훤히 보이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전북도립미술관 역시 건립 초기에는 도민의 일상적·대중적 접근성을 중요시하여 시내 부지를 모색했으나 미술관 건립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완주군에서 미술관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건립하게 되었다.

전북도립미술관의 건립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전통문화의 고장인 전라북도에 세워진 대표적인 예술문화 공간으로 2001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0월에 개관하였다. 도립미술관은 기획, 상설전시, 미술작품의 수집과 보존, 국내 작가발굴과 국제 교류전을 통하여 전북의 많은 작가들과 도민들의 생활속에 폭넓은 미술문화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북의 많은 예술문화 공간과 연계하여 전북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공미술관으로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린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이다.

전북도립미술관은 건립 당시부터 미술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건립 후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으나 개관 6개월 만에 10만 명이 관람하는 등 우려했던 것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2006년 11월 현재, 하루 관람객은 400명 정도이다. 미술관으로 가는 접근성이 불편함에도 관람객이 호기심을 갖고 방문하는 이유를 전북도립미술관 최효준 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2004년 개관이래 현재(2005년 4월) 6개월이 되었는데 1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자체기획인 중국현대미술전 마지막 날은 천 오백명이 관람하여 현재의 미술관 인원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웠다. 보통 주중에는 200 ~ 300명이 관람하고 있다... 미술관이 도심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동선이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으나, 전북도립미술관은 미술관 입지로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체 기획력 확보, 예산, 프로그램 개발, 미술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 대중문화가 확산 되는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해 처음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미술관의 접근성에 대해

다소 불편해할 수 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함께 자가 차량을 갖고 있는 관람객이 많아지고 또한 자녀들의 토요일수업과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초기 단계에서 미술관 접근성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현재 전북도립미술관은 전주 시내의 전북대 부근에 있는 전주소리문화전당보다 방문객들이 더 많다.¹³⁰⁾

이와 같이 미술관의 접근성이 불편함에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자기개발과 온 가족이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전북도립미술관의 사례를 통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관람객에게 접근하려는 미술관의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어린이 실습실 입구



<그림 11> 야외 공간

전북도립미술관의 조직을 살펴보면 관장을 중심으로 학예연구실, 관리담당, 전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2005년 4월) 직원이 14명이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북도립미술관은 어린이 아뜰리에, 일반인 실기 강좌, 영화 상영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립미술관 최효준 관장은 미술관 운영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130) 전북도립미술관 최효준 관장과의 인터뷰 내용. (2005년 4월 17일)

현재 전북도립미술관 전시공간이 448평 정도가 되는데 자체기획을 할 때 전시공간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공간의 제약으로 상설전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소장품이 없어 현재(2005년 4월) 미술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소장품 정책마련은 미술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자체 기획력을 중심으로 미술관 운영을 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도립미술관은 ‘지역미술의 정체성과 미술의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소장품 정책방안 아래 수집하고 있다. 또한, 한해 예산이 부족하여 미술품 관리에 가장 중요한 향온·향습이 24시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향후 미술관 건립에 있어 자연 친화적 건축은 중요하다.

부산시립미술관 역시 최신 향온·향습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 전기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근무시간 동안에만 가동되어 최신 설비가 무의미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여타의 국·공립미술관, 박물관 모두에게 공히 문제점으로 남게 되는데, 현재 교육기관으로 할인을 받고 있으나 그 비율이 너무 적고, 교육기관과는 달리 24시간 가동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¹³¹⁾

<표 22> 전북도립미술관 개관기념전 내용

기획전	
엄폐·모악(母岳) (10월 14일~11월 25일)	모악을 주제로 한 평면, 입체, 설치작품 80여 점 제3,4,5전시실 50여명 출품
전북미술의 조명 1부 (10월 14일~11월 25일)	전북연고 원로 작가들의 대표작품 59점 제1,2전시실
전북미술의 조명 2부 (12월 3일~1월 18일)	전북미술의 조명 2부 전시로 전북연고의 중년, 청년작가들을 초대하여 전북미술의 현주소와 정체성을 찾는 기회를 갖고자 기획

131) 광주광역시, 『광주현대미술관건립기본계획연구』 (광주광역시, 2000), p.165.



(3) 경기도미술관(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그림 12, 13> 경기도미술관

<표 23> 경기도미술관 시설 개요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내)
개관연도 : 2005년 7월21 기공식, 2006년 10월 25일 개관
부지 : 10,000㎡(15,000평)
연면적 : 2,500평
전시실 면적 : 3,063㎡(927평)
수장면적 : 969㎡(293평)
사무관리 : 1,000㎡(303평)
교육영역 : 735㎡(222평)
편의영역 : 2,510㎡(759평)
사업비 : 총 사업비 259억 원(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주요시설 : 상설(4) 및 기획전시실(4), 자료검색실, 도서실, 강당, 세미나실, 교육실, 카페테리아
규모 : 지상 2층
소장품 현황 : 114점

천만 인구의 경기도는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에 경기도미술관을 건립하여 2006년 10월에 개관하였다. 1997년 경기도미술관 건립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1년 건립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면서 거의 10여 년 만에 건립되었다. 경기도미술관은 백남준 기념 미술관과의 중복투자와 부지사용 문제 등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나 기본계획연구에 명시된 사업규모에서 축소된 형태로 완성되었다. 경기도미술관은 경기도의 문화역량 배양과 더불어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지역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지역의 문화 정체성 확립,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여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경기도는 건립과정에서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도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경기도미술관 건립기념전¹³²⁾을 개최하였다. 미술관 건립 계획 수립 시, 추진과정에서 도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미술관 건립 기금마련전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례이다.

경기도미술관은 현대미술관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는 건축과 주변 화랑유원지의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기도미술관은 건축이 독특한 면이 있는데, 미술관 밖의 회랑주변에 있는 물이 자연스레 공간에 들어와 미학적으로 아름다우며, 실내의 정적인 공간을 움직임이 많은 공간으로 활력을 주고 있다.

경기도미술관은 다른 지역의 공립미술관보다 전시공간이 927평으로 미술관 면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대미술관으로서 규모가 큰 기획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전시공간의 특성은 천장높이가 7m가 되며 개폐의 조정이 가능한 천창을 통해 자연채광의 도입과 원격장치로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시장 내 가변 칸막이를 내장하여 필요한 공간의 구획 및 벽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미래의 소장품 확보 계획을 예상하여 수장고 면적이 293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미술관은 현재 개관전으로 스페인의 거장 호안 미로, 상정의 세계(Joan Miro, Parade of Obsessions)를 전시하고

132) 경기도미술관은 건립기념전으로 2004년 ‘먹의 유혹’전과 2005년 경기도미술관 건립기념 한국화전, ‘먹의 바람’과 같은 해, ‘가고픈 京畿秘境’전을 개최하였다.



있다. 조직은 총무팀, 전시팀, 조사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4> 경기도미술관 개관기념전 내용

경기도미술관 개관기념전	
사업개요	전시명 : 호안 미로, 상징의 세계 (Joan Miro, Parade of Obsessions) 전시기간 : 2006. 10. 25~2007. 1. 25
전시내용	스페인 바르셀로나 호안 미로 재단 보유 작품 146점 대여전시 (회화 36점, 조각 25점, 판화 35점, 사진자료 50점)
기대효과	대규모 국제전을 통하여 미술관 개관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폭넓은 관객층을 확보하여 현대미술관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함.



<그림 14, 15> 경기도미술관 내부

4.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계획과 유사사례 비교

이상과 같이 제주도와 지정학적, 건립방식, 건립주체에 있어 유사한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첫 번째, 섬이란 지리적 환경과 유사한 사례로 나오시마

현대미술관의 건립배경을 살펴보았다.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은 ‘사람과 문화를 키우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나가사키현의 문화행정이 뒷받침 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미술관을 건립할 때 한번에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7년여에 걸쳐 치밀한 계획 하에 단계별로 건립계획을 수립한 점은 현재의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이 있게 한 이유이다. 산과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곳에 건립된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은 미술관뿐만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 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문화관광 지역으로 손색이 없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곳의 소장품은 다른 미술관과 달리 특별한 과정으로 창작된 소장품들로 나오시마현대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소장품은 나오시마 자연환경과 건축에 어울리도록 미술관측이 작가를 커미셔닝하여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미술관 개관 이후에도 청소년을 위해 야외공간을 개방하고 있는 점은 현대미술관으로서의 개방성을 드러내고 있는 운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은 21세기 미술관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며 건립함은 물론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살린 미술관으로서 새로운 미술관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선 현재까지 BTL사업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건립사례가 없으므로 일본의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건립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립한다는 것은 건립예산을 줄이며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드러낸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이 일본의 공공시설 건립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건물 유지·관리를 맡은 민간사업자와 전시기획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술관측이 충분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신뢰와 노력을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분석된다. 결국 이 사업의 목표는 민간의 전문성을 끌어들이어 서비스구매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관람객의 편의에 따른 각종 구매사업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분석된다.



다음은 제주도립미술관건립 주체 측면에서 유사한 경남도립미술관 및 전북도립미술관과 최근에 건립된 경기도미술관 건립 사례를 분석하였다. 경남도립미술관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된 도립미술관이다. 이곳은 창원시내 도청 및 관청이 속속 들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제주도립미술관건립 추진과정에서 입지 분석을 할 때, 접근의 대중성과 일상성을 들어 미술관은 시내 중심에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으나 답사를 통해 경남도립미술관은 시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은 좋으나 부지가 적어 주차장 시설 등 현대미술관의 개념들이 빠르게 확장되는 현실에서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건립된 도립미술관이다. 미술관의 일상과 대중의 접근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다양한 관람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규모가 큰 기획전 중심의 사업으로 미술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경남도립미술관과 전북도립미술관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일상의 접근성보다 다양한 기획전과 교육 프로그램, 각종 서비스 기능이 관람자를 끌어들이는 성공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다.

2006년 10월에 건립된 경기도미술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합해 930평이 되는 현대미술관이다. 현대미술관의 핵심인 전시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7m가 되는 높은 천장고는 새로운 개념의 현대미술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천장에는 자연채광이 간접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으며 조명시설 또한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현대적으로 설계되었다.¹³³⁾

이상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립미술관건립은 일상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입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내·외의 활발한 전시기획과 안락하고 좋은 서비스 시설 구축은 물론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나오시마현대미술관과 가나가

133) 경기도미술관의 전시실은 총 8개로, 4개의 규모있는 전시실과 4개의 상설전시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획전시실은 높이가 7m가 되므로 원격조정으로 조명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벽체 역시 3m, 5m 크기로 작품을 걸 수 있도록 기구를 설치하였다.



와현립근대미술관 건립 사례와 같이 연차별로 건립계획을 세워 새로운 미술관
문화를 세워나가야 한다.



V.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의 개선방안

1.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전문화

미술관 건립 계획은 단순히 소장품을 전시하여 보여주는 수동적인 계획이 아니라 동시대 문화를 반영하고 활성화시키는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미술관의 동향과 지역의 문화적 토대를 검토하고, 미술관을 이용할 다양한 관람자와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세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미술관 건립 계획 수립 시, 규모와 예산을 가늠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술관 건립 계획의 시작은 미술관이 왜 건립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등 존립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건립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이 모든 일들은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므로 건립 추진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미술관의 역사는 물론 현장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학자, 미술관 전문건축가, 전시기획자, 조경가, 행정가 등 전문분야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입지분석과 선정에 있어서는 접근성의 시각을 일상의 접근성과 자연의 접근성을 동시에 분석해야 하며, 새로운 부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과 인지도가 있는 공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도심지 내·외와 함께 새 부지 및 역사성 있는 건물을 개축하여 건립했을 경우의 효과를 두루 고려한 입지분석이어야 한다.

소장품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법상 100점이 있어야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된다는 조건 때문에 무리하게 기증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미술관 문화를 적용시키거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미술관 성격을 마련하기 전에 작품을 우선적으로 기증받게 되어 다른 지역의 미술관과 차별화를 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를 토대로 미술관의 특성이 될 소장품 수집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사례로 제시한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은 소장품의 특성을 갖기 위해 미술관 측이 커미셔닝한 아티스트를 선정하여 미술관을 방문하게 한 다음 그들이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하고 있다. 예술작품은 미술관내의 공간뿐만 아니라 미술관 주변 숲과 해안을 따라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나오시마의 자연환경과 건축, 내·외부 환경이 조화를 이룬 작품들로 탄생하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 역시 기증을 통한 소장품을 미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이 드러난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나오시마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정책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작품들을 소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¹³⁴⁾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는 지역에 바람직한 미술관의 모습을 구상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는 실제 적용되기보다 의례적인 행정절차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인 경우, 연구에 대한 사후 평가 작업이 수행되지 않은 연구를 시설개요의 근거로 삼고 있어 미술관의 특색을 모색하기 전에 규모만 2/3로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연구가 나오면 그것을 곧 적용될 수 있도록 사후 평가 작업은 중요하다.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에 있어 추진과정의 체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4) 제주도는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전 세계의 예술가들에게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제주도립미술관은 건립 후, 국제미술교류, 체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이를 미술관 사업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장품 마련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레 소장품이 되도록 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25>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전문화 과정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전문화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박물관·미술관학자, 전시기획자, 조경가, 미술관 전문건축가, 행정가 등 전문분야의 핵심 인적구성.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	지역에 어떤 미술관을 건립할 것인가.(준립의 당위성) 어떤 것을 전시할 것인가. 지역민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 지역의 문화적·환경적·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미술관 내·외부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미술관 건립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미술관의 명확한 성격규정	미술관 성격규정은 미술관 건립 이후의 모든 계획단계에서 의사결정의 기본 틀이 되고 차별화된 미술관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미술관 문화의 흐름과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 등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미술관 제도의 변화와 미술관 문화 현황 분석 및 미술관 내·외부 환경 분석, 이용자(지역주민 포함) 조사와 시장성 분석 등 필수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	최근 미술관건립 동향과 흐름 파악 구미 각국의 미술관 운영사례 분석 및 지역과 유사한 사례 분석, 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파악 지역의 현실적 여건과 미래 변동 예견 입지분석 시 도심지 내·외의 접근과 새로운 부지 및 개축을 통한 지역의 역사성을 담을 수 있는 공간 분석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 평가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평가작업 필수

2. BTL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 기능 확대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박물관 정의를 보면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비영리적이며 항구적인 기관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미술관 문화의 동향을 살펴보면, 미술관 역시 기업의 마케팅을 적극 도입하여 다양한 관람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과거 미술관의 정태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미술관, 역동적인 미술관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와 보존을 위한 연구기관의 역할에서 최근 미술관들은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으로 미술관의 특성화 전략수립과 함께, 경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창의성이 미술관에 도입되면서 미술관의 재원이 다변화되고 수익사업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어 재정자립도 증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기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사례들을 구미 각국의 미술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저녁 시간대에 특별한 모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하기 시작하고, 맨해튼 5번가에 있는 프리크미술관도 금요일 밤에는 ‘와인 바’를 만들어 부수입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미술관의 역할이 오늘날 미술만 감상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감하고 활용하는 문화공간인 것을 보여주는 사례¹³⁵⁾라 할 수 있다

닐 코틀러(Neil Kotler)는 「문화를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 New Ways of Experiencing Culture : the Role of Museum and Marketing Implications」에서 미술관의 서비스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35) 유지복, 「경기도립미술관 환경조경설계」(서울대 환경대학원, 2005), pp.24~25.

박물관 및 미술관 안에 고급 식당, 고급품을 파는 가게, 영화 및 비디오, IMAX 극장과 같이 사람들을 유인하는 공간이 들어서고, 프로그램, 행사, 특별체험 및 사고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박물관이 담장을 넘어 그 경계선을 확장하고 있다는 신호들이다. Getty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전차를 타고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일광욕, 식사, LA시가지와 바다 구경, 유명배우 집 구경, 정원 산책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¹³⁶⁾

이와 같이 구미 각국의 미술관의 사례만 보아도 현대의 미술관은 다양한 기능들을 미술관에 적용시키며 수익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술관 수익사업의 유형으로는 입장료 수입 외에, 공간임대사업과 인터넷 사업, 레스토랑·뮤지엄샵 운영, 강좌, 회원 운영 등이 대표적인데, 각각의 사업을 미술관 건축설계 시,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공간 및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BTL제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상 BTL추진방식에 의한 시행을 통하여 설계, 건설, 유지관리 등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문화환경과 편의의 증진에 기여하는 문화시설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³⁷⁾

정부의 BTL사업의 배경은 건설경기부양의 한 방편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단순한 민자시설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마케팅 전략의 구사, 첨단 장비의 도입 그리고 복합문화시설로서 연계 시스템 등을 계획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136) Neil Kotler, 「New Ways of Experiencing Culture : the Role of Museum and Marketing Implications」, (Museums Management and Curatorship).

137) 제주도,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제주도, 2006), p.4.

그러나 자체재정사업이든 BTL사업이든 미술관은 한해 입장료, 뮤지엄 습,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좌수입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해도 수익이 한정되어 있는 비영리기관이므로 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향후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미술관이 예산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때문에 제주도립미술관 역시 BTL제도의 특성이 지역사회에 정착되기 전에 예산부족으로 규모있는 기획전과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BTL제도의 단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미술관 발전 기금 조성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은 필수적이다.

3. 특성화된 건축 공간구성

21세기 미술관의 도전은 미술관의 주요 관객층을 형성할 뉴미디어 세대와 방문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느냐는 것이다. 새로운 관객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말할 나위 없으며, 뉴미디어 기술의 활용과 새로운 뉴미디어아트 관련 컬렉션, 전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관람객수의 확장과 창조적인 예술공간으로 경쟁력을 확보 138)해야 한다.

따라서 미술관의 정체성은 영구적인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프랑스 파리의蓬피두센터와 같이 문화적 충격을 주는 곳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건물 자체가 전시·보존의 영역에서 벗어나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138) 경기도, 위의 책, pp.10~16.

뮤지엄의 현대적 개념은 내용과 형식 모두 개방성을 중심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개방성의 의미는 뮤지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기능 중에서 대중에의 개방을 의미하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현대 뮤지엄이 진화하여 갈 과정을 뜻한다. 결국 뮤지엄은 그 시대 사람들의 교육의 역할을 맡는 내재적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커뮤니티 생활의 기초가 되는 역할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¹³⁹⁾

미술관의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 비해 미술관의 숫자나 미술관 진흥 정책에 대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지자체들은 미술관 건립 사례로서 유일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을 건립 사례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끊임없이 미술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미 공간구성에서 현대미술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국립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들의 공통된 건축양식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술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간 기능의 유연성 확보

과거 상설전시와 기획전시공간을 엄격히 분리하던 때와는 달리 최근 미술관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기획전시를 위한 공간이 한정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상설전시공간으로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립미술관 시설개요를 보면 상설전시 200평, 기획전시 400평, 시민 갤러리 67평, 중앙 및 리셉션홀이 100평으로 되어 있다. 상설전시실 비율에 비

139) 서상우, 위의 책, p.12.

<표 26> 제주도립미술관 시설 개요¹⁴⁰⁾

구분	기능	면적(평)	비고
전시·관람 (767평)	상설전시	200	· 상설전시실 및 전시준비실
	기획전시	400	· 기획전시실 및 전시준비실 · 작품반입구, 작품하역장
	시민 갤러리	67	· 전시실/전시준비실, 작품반입구, 하역장
	중앙 및 리셉션홀	100	· 중앙홀, 주출입홀, 옥내외 경비 실, 매표소, 안내 및 접수
수장·작업 (247평)	일반 수장고	100	· 수장전실, 수장고
	특별 수장고	67	· 수장고, 수장전실
	수장 전시실	30	· 수장홀
	각종 시설	50	· 수장관리실, 순응실, 하역장, 포 장실, 훈증실, 정리실, 촬영실, 목공수리실, 각종 창고 및 화물 엘리베이터 홀
교육·자료 (172평)	다목적 강당	99	· 강당(객석,무대), 준비실, 분장 실, 음향조정실, 영사실, 동시 통역실, 창고
	실기 및 교육실	27	· 로비, 강의실, 워크샵 및 세미 나실, 실기실, 사무실, 기자재실, 강사실, 교육실, 휴게실, 창고
	자료 열람실	29	· 사무실, 열람실, 영상자료실, 서 고, 물품보관실, 자료정리실, 복 사실, 휴게실, 창고
	영상 자료실	10	· 체험 및 어린이 전시실
	각종 시설	7	· 사무/강사실, 기자재실, 교육자료실

연구·조사 (87평)	학예실	67	· 학예실장실, 학예연구실, 학예창고, 객원연구실, 복사/인쇄실
	보존과학실	20	· 실험실, 사진촬영 및 암실, 약품창고, 창고 · 세미나실, 자료실, 기자재보관실, 휴게실, 창고
사무·관리 (248평)	사무실	71	· 관장실, 실장실, 사무실, 응접실, 복사/인쇄실, 회의실, 문서창고, 비품창고 · 귀빈실, 기자실, 방송실, 임시사무실, 직원휴게실
	보안 및 유지시설	10	· 미화원실, 청소도구실, 중앙감시실, 경비실, 당직실
	설비시설 (기계정비)	167	· 기계전기실, 공조실, 발전기실 등 · 장비반, 입구, 옥내외 주차장, 쓰레기처리장, 옥외화장실
편의영역 (92평)	부속시설	92	· 편의공간, 식당매점, 뮤지엄샵, 각종 지원시설
공용·공공 (387평)	공용시설	387	· 각종 홀,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총계		2,000	

해 기획전시실 비율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앞장의 유사사례에서 살펴본 전북도립미술관의 경우, 전시공간이 448평이 되고 있으나 자체기획을 할 때, 전시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립미술관은 대지면적에 비해 건물연면적이 2,688평으로 전시실 공간이 711평으로 전북도립미술관보다 훨씬 크다. 특별전

140) 제주도,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제주도, 2005. 12. 29), p.5.

시실 33평이 있으나 이는 아카이브 전시나 도자중심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경남도립미술관은 별도의 상설전시는 없으며 기획전 중심의 전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건립한 경기도미술관은 전시공간이 927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개념들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주도립미술관은 현재 200평으로 되어 있는 상설전시실을 고정된 공간으로 두지 말고 언제든지 기획전을 유치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 및 리셉션홀이 100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은 관람객이 처음 들어오는 공간으로서 유동적인 공간이다. 전시공간이 부족하면 중앙 홀까지 사용하므로 중앙 및 리셉션홀은 각종 행사 및 축제 관련 시설로 다목적 광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갤러리 67평은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연구에 명시된 것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전시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도민을 위해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것이라 보아진다. 그러나 도립미술관에서 대관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또한 상설로 두지 말고 규모가 큰 기획전을 유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유연성이 요구되어 진다.

또한 시설개요에 따르면, 보존과학실의 평수가 20평으로 되어있는데¹⁴¹⁾ 국립제주박물관의 보존과학실(유물정리실, 촬영실포함)은 10년 전에 건축되어 공간이 협소하다. 제주도립미술관의 보존과학실은 큰 기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폐가 용이한 큰 문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미술관을 표방하고 있는 제주도립미술관은 천장높이가 최소 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영은미술관의 경우 천장고 높이가 7m로 어떠한 현대미술도 설치되게끔 디자인되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88년에 건립되어 천장고가 3m 80cm이다. 천장고가 낮아 2004년 평화선언전¹⁴²⁾을 개최할 때 대형작품을 디스플레이

141) 제주도립미술관은 현대미술관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 민속학 등의 유물에 대한 수집 및 보존을 담당하진 않으나 앞으로 다양한 재료의 현대미술을 보존하기 위해선 규모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레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현대미술관으로서 다양한 전시기획을 유치할 수 있는 천장고 높이는 최소 5m이상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립미술관은 건립 초기부터 미래의 사회적 변화, 예술 활동의 변화, 관람객과 미술관 문화의 변화 등을 예측하여 공간을 디자인해야 한다. 즉, 미술관은 하나의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전시, 보존, 수장, 교육, 서비스 등 지속적인 공간의 확장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차후 증축을 통한 확장 가능성 부분을 고려한 계획이어야 한다.

(2) 체험위주의 공간 실현

박물관에 간다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행동이며, 그 행동 자체 외에 다른 어떤 보상도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만약 박물관에서의 체험을 다양한 흐름 체험(varieties of flow experience)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하는 열쇠를 얻을 것이다.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관람객에게 흐름 체험-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새것을 찾는 기회, 개인적으로 중요한 통찰력 등-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결국, 체험을 반복하게 하고 배움을 지속하도록 자극해 주는 것은 습득한 정보가 아니라 이러한 만족스런 감각이다.¹⁴³⁾

세계적으로 미술관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 역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전북도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미술관 문화의

142) 2004년 평화선언전은 전 세계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였으나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전시실의 천장고가 낮아 안젤름 키퍼의 해바라기 등,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관람자로 하여금 답답한 인상을 주었다.

143) Marlene Chambers, "Beyond 'Aha!': Motivating Museum visitors", In What Research Says About Learning in Science Museums,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s, 1990. 과학박물관이 특정 사실이나 원리들을 직접 가르치는 "aha"의 경험에 계속 안주한다면, 그 전시는 체험 위주(experience-driven)가 되지 못하고 정보제공 위주(imformation-driven)로 그칠 것이다.

개념을 새롭게 한 풍피두센터 역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활발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관을 건립할 때, 어린이들이 미래의 미술관 관객으로 보고 이들을 창의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과 실험을 펼 수 있는 체험학습¹⁴⁴⁾ 공간 마련은 필수적이다.

최근 건립되고 있는 미술관의 동향을 보면 미술관은 평생교육의 장소로서 다양한 서비스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와 수장 공간의 비율이 컸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교육과 각종 서비스 시설을 대등하게 구성하고 있다. 현대 미술관 건축의 특성으로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방문객 편의시설(museum shop, cafeteria, 세미나실, 강당, 서점)은 미술관 개관시간과 관계없이 별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립미술관 시설개요에는 1,101평 대 264평으로 전시, 연구, 조사 수장 공간에 비해 교육 자료, 서비스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술관 건립 계획 방향에는 참여·체험 미술관으로서 일상적인 커뮤니티 시설로의 공간제공, 다양한 참여, 체험의 기회 제공, 미술관 내·외부 활동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표방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들을 충분히 공간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BTL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할뿐더러 최근의 미술관 동향을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제주도립미술관은 2,000평 규모로 강당, 세미나실을 따로 계획할 수 없으므로 강당은 회의나 세미나를 위해 다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제주도립미술관의 시설개요를 살펴보면, 연면적이 2,000평으로 축소되면서 약 200석 규모의 강당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주도립미술관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국제적 규모의 각종 심포지엄과 세미나의 개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당의 객석수는 최소 300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경남도립미술관이 92평의 다목적 홀을

144) 미술관 문화의 변화는 단지 소장품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공간화시켜 냄새, 읽는 것, 빛의 밝고 어두움, 감각적 쾌감 등 오관의 다양한 접근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체험 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갖추고 있고 전북도립미술관에는 195석의 강당(89평)이 조성되어 있다.

(3) 자연친화적 공간 마련

미술관 건립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 그리고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건립 이후에도 전시와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미술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최근 건립계획을 갖고 있거나 건립되고 있는 미술관들은 이러한 운영비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미술관 건립 계획 수립 시, 미술관 내부에 자연적인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현대 미술관 건축의 동향을 살펴보면, 유리를 벽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가나가와21세기현대미술관은 미술관 건물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외관이 유리로 되어 있다. 이는 미술관의 내·외부의 연결, 그리고 출입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미술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다. 이러한 건축은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자들에게 좀더 편안한 인상을 줄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에선 경남도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이 미술관 외관에 유리를 이용하여 건축되었다. 이러한 미술관 건축의 변화들은 미술관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술관 외벽의 콘크리트 재료는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자로 하여금 육중함과 딱딱한 인상을 갖게 한다. 이러한 미술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계층과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편안한 인상을 갖게 하는 유리를 미술관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미술관의 기능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의 변화가 건축으로까지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역시 건축설계에서부터 미술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설계는 필수적이다. 즉, 전시실을 포함한 실내공간은 자연채광을 이용한 건축으로 상층부뿐만이 아니라 하층부까지 전달되도록



한다. 또한 자연광을 유입하기 위한 개구부가 외부조형으로 나타나는 밀접한 상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⁴⁵⁾

최근 건립한 경기도미술관 역시 자연채광을 적절하게 사용하게끔 건축되었다. 보통 천장으로 자연채광의 빛이 바로 들어오게 설계되는데 경기도미술관은 비스듬하게 설계되어 자연채광의 눈부심에서 오는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조도의 안정감을 주고 있어 관람자로 하여금 편안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¹⁴⁶⁾

(4) 증축 및 확장 가능성 고려

기존에 세워진 미술관들은 컬렉션의 수장과 전시에 많은 면적을 할애한 설계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증축 사업을 통해 관람객들이 집결,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하여 이용편의 및 이용 빈도와 그에 따른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대영박물관과 뉴욕현대미술관, 폴게티미술관 등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의 신축, 증축 경향을 보면, 전시, 소장 공간 대비 교육공간이나 자료실, 정보 검색실, 가족용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 관람객 서비스를 위한 공간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¹⁴⁷⁾ 국립제주박물관 역시 다양한 관람객의 여가를 위한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옥외 공간 개방, 토요일간개관, 도서실 개방, 무료관람기회 확대 등 열린 미술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다가서고 있다.

기본계획안에는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동북아시아의 문화센터로서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미술 네트워크 기획

145) 경기도미술관 역시 자연채광을 도입한 전시실과 실내공간을 만들었으며 개구부가 외부조형으로 멋있게 나타나 있다.

146) 폴 게티 미술관의 제일 위층 회화 전시실에는 천장으로부터 자연채광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천장에는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블라인드는 햇볕의 강도에 따라 컴퓨터로 자동 조절되어 전시실로 들어오는 광선의 조도를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혜진, 「폴 게티(Paul Getty)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홍익대 미술대학원, 2004), p.24.

147) 경기도, 위의 책, pp.10~16.



을 유지하는 탄력있는 조직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건축개요에는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사업에 관한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차후 제주도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체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¹⁴⁸⁾을 특성화하기 위해 증축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국내외 체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미술관의 재원 확보는 물론 국제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즉,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나 신진작가들에게 창작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허브도시로 만들 수 있다. 점점 지역성에서 다원화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교류를 통한 끊임없는 만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모마는 뉴욕에 위치하면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과 함께 젊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이 전개되는 PSI를 흡수하면서 미술관이 수용할 수 없는 현대미술 현장을 미술관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전개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스테델릭 미술관의 경우도 ‘뷰로 스테델릭’을 별도로 만들어 네덜란드의 젊은 작가와 국제 미술계의 현장을 동시에 시차없이 수용할 수 있는 부설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⁴⁹⁾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1997년부터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는 중외공원 내 팔각정을 개조하여 광주시립미술관 팔각정 스튜디오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2002년 6월부터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미술창작스튜디오를

148) 최근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현대적 양상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미술관 기능인 전시, 교육, 조사, 연구, 보존 등과 더불어 지역문화 활동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미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공간을 갖춘 창작스튜디오 운영, 지역 공예의 활성화를 위해 공예공방을 이용한 전문가의 양성과 지역 사업체와의 협동을 통한 문화산업의 개발, 연구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체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미술관의 특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149)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78.

건립하여 14명의 작가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부실을 안고 있다. 그러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교류와 인적교류를 통한 창작의욕의 고취와 타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지역주민들에게 미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¹⁵⁰⁾ 제주도립미술관이 세워질 현 건립지는 주변 환경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없으나 섬이라는 지리적으로 특수한 곳에 건립되므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다른 공립미술관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4. 개관 기획을 위한 계획수립

(1) 전문인력 중심의 개관 준비팀 구성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한정된 예산과 행정적 제약들로 인해 처음 계획대로 모든 체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개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술관은 계획수립부터 완성 그리고 건립 후 운영을 위한 계획까지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지만 현재 개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개관 기획팀 구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는 건립 후 미술관의 인사 및 예산이 도의 관할 하에 놓이지 않도록 미술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2008년 개관 준비를 위한 단계별 실무조직을 구성해서 ‘개관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미술관 조직, 소장품, 예산, 기획

15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p.2~4.

전시, 상설전, 교육프로그램, 마케팅 등 미술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1962년부터 구상되어온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풍피두센터는 1969년 건립을 위한 제반 사항들이 결정되어 1977년 1월에 개관되기까지,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센터의 건설과 병행하여 운영을 위한 계획안이 전문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도립미술관건립기본계획연구에 따르면, 제주도립미술관 개관을 위한 개관 기획팀을 구성하여 미술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개관 전에 작품과 자료의 수집, 개관전(展) 및 개관 당해연도 전시기획 요원, 미술관 업무의 준비를 위한 행정요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특히 개관전에 필요한 전시기획자, 학예연구사 등 전문 요원은 개관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⁵¹⁾ 한편 전북도립미술관의 경우 개관을 위해 관장과 학예직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해¹⁵²⁾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 점은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51) 제주도, 위의 책. p.110.

152) 미술관은 연구조사보존전시·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회사와 같이 미술관 전반적인 시설관리와 회계, 보험, 인사, 전기, 건축, 조경 등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복합공간이다. 그러므로 미술관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2004년 전북도립미술관과 경남도립미술관을 답사한 결과 한해 국내외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립미술관들 중 일부는 전문인원을 확충해야 할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적은 인원수로 전시기획 등 미술관 운영 전반에 관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국립미술관은 관장을 명예 관장직으로 하거나 원로 미술인이 관장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 관장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시정해야 될 일들이다.

(2) 개관전(展) 기획 실행의 적정일정 확보

전북도립미술관은 전북의 상징인 엄포·모악산을 주제로 한 기획전과 함께 원로 작가 및 청년작가로 나누어 전북미술의 맥을 짚는 개관기념전을 하였다. 그리고 경남도립미술관은 경남의 찻그릇전 등 좀 더 매체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개관기념전을 개최하였다. 경기도미술관의 경우는 스페인 화가 호안 미로의 작품들을 개관전에 선보였는데 이는 개관 3년 전부터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호안 미로전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으나 경기도미술관이 ‘지역성’에서 벗어나 ‘국제성’을 개관전(展)부터 확보하여 현대미술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마련하고자 한 점은 눈에 띄는 점이다. 향후 제주도립미술관 개관전 역시 지역성과 국제성을 놓고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가 제주도의 특성을 잘 드러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기획전 및 순회전을 예로 들면, 2005년 <중국미술의 오늘>전은 국립현대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이 공동주최로 기획한 전시였다. 전국의 국·공립미술관의 순회전은 전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다른 공립미술관의 좋은 기획전을 또 다른 지역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순회전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뿐만 아니라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서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다. 또한 전북도립미술관 기획전인 <미술로 본 한·국근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광복 60주년기념-한국미술 100년>으로 개최하고 전북도립미술관에서 다시 개최한 기획전이다. 그 외에도 자체기획전이나 좋은 사회교육프로그램 공유, 지역의 성격이 드러나는 소장품을 전국 국·공립미술관 순회전으로 기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전시기획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순회전은 지역의 현실적 여건으로 유치하기 어려울 때 각 지역을 순회하며 향수권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이 예산확보와 전문전시기획인력의 부재로 미술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국 국·공립미술관 순회전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



고 우리나라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구분되어 있으나 기능이 다르지 않으므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교류협력 사업 또한 필요하다.

제주도립미술관은 건립 이후 관장선임에 관한 문제, 미술관 지원에 관한 정확한 규정과 미술작품 기증절차와 그에 따른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뚜렷한 법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술관건립에 관한 정책적 차원의 특화와 제주도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계획 단계부터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구도 속에서 구상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관광의 거점으로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집중 육성되고 마케팅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지역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하며, 전시기획이나 소장품 수집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VI.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미술관 건립 계획수립 시, 건립의 중요성과 프로젝트로서의 건립의 전문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미술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미술관 건립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즉,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화·환경·지정학적 측면의 특수성 안에 미술관 문화의 과거와 현재의 동향은 물론 미래의 변화를 어떻게 교차하며 건립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따라서 구미 각국에서는 이미 미술관 건립을 프로젝트로서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이론을 제시하며 새로운 미술관 문화를 만들고 있다. 그만큼 미술관 건립은 지역 이미지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전문적인 건립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우선 프로젝트로서의 미술관 건립 인식 부족으로 미술관 성격마련과 입지분석 및 선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미술관 성격이 마련되기 전에 다수의 작품을 기증받은 점, 그리고 BTL제도에 대한 특성과 가능성 및 한계점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추진한 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우선, II장에서 미술관 제도의 성립과 전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문화이론을 바탕으로 미술관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고, 사회·문화적 변화들이 최근 미술관 건립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뉴뮤지올로지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뮤지엄 기획자인 게일 로드와 베리 로드가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따라 프로젝트로서의 미술관 건립의 제 문제 및 계획수립과 실행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경과 분석으로서, 미술관 건립 동기와 배경 및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전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미술관 건립의 기대효과와 추진과정에서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미술관 성격, 입지분석 및 선정, 소장품, BTL제도로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유사사례 분석으로 제주도와 섬이라는 지정학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일본의 나오시마현대미술관, 제주도와 건립방식이 유사한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국내 사례로서 경남·전북도립미술관과 최근에 개관한 경기도미술관 건립 사례 비교를 통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의 특수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경과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 번째,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의 전문화이다. 미술관 건립 계획 수립 시, 지역에 미술관의 필요성에 관한 존립 근거를 각종 포럼을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최근 미술관 건립 동향을 충분히 드러낸 성격 있는 미술관 문화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미술관 성격마련은 입지, 시설, 규모, 조직, 예산, 건축, 공간 등을 결정하며, 건립 후 미술관 운영의 모든 것을 마련하는 기본 틀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미술관 성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그리고 입지 분석과 선정 과정에 있어 입지의 역사성, 인지도, 향후 증축 및 확장 가능성, 주변 문화시설의 분포도를 분석하고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접근성만으로 분석한 점은 문제였다. 전북도립미술관과 일본의 나오시마현대미술관 건립 사례를 보면 일상의 접근성은 떨어지나 활력있는 기획 전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최상의 서비스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 등 미술관 내외 활동을 갖춤으로써 관람객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입지 분석은 도심지 내·외의 분석과 함께 세부지와 지역의 역사성이 있는 건물을 개축하여 건립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이미 현대미술관을 표방하며 입지가 선정되고, 미술관 시설개요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앞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미술관 문화를 활성화시키려면 건립 후에도 프로젝트로서의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 BTL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 기능의 확대이다. 최근 미술관 건립 동향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관람자를 위한 서비스 기능을 적용시킨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과거 미술관은 소장품의 중요성으로 건립되고 이를 잘 보존하는 기능과 역할로서 어느 특정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미술관에 도전하고 있는 뉴뮤지올로지가 등장하면서 인간 중심의 평생교육의 장소로 변화하고자 다양한 서비스 시설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은 최근 미술관 문화와 BTL제도의 가능성이 잘 교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확대하여 지역에 새로운 미술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특성화된 건축 공간구성이다. 미술관이 나무와 같이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공간 기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람자를 위한 체험위주의 공간을 실현시키고, 운영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마련은 필수이다. 또한 향후 미래의 변화에 따라 증축 및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이 되어야 한다.

넷 번째, 개관 기획을 위한 계획 수립이다. 전문인력 중심의 개관 준비팀을 구성해야 하며, ‘개관전(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관전 기획 실행의 적정일정 확보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로서의 미술관 건립의 전문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그 시의성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주도립미술관은 이미 완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이 아니라, 현재 추진과정에 있으며, 향후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의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어 건립 프로젝트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좀 더 사회·문화·정치·경제적 배경과 함께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점을 밝혀둔다. 따라서 그 외 미술관 조직, 전시, 예산, 교육, 마케팅 등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차후 미술관 문화의 연구과 실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 문헌

국내 단행본

- 강명구,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1993.
- 김형숙, 『미술관과 소통』, 서울: 예경, 2001.
- 김형숙, 『미술, 전시, 미술관』, 서울: 예경, 2001.
- 케리 에드슨·데이비드 딘 지음, 이보아 옮김, 『21세기 박물관 경영』, 서울: 시공사, 2001.
- Neil Kotler-Philio Kotler 지음, 한중훈·이혜진 옮김, 『박물관 미술관학-뮤지엄 경영과 전략-』, 서울: 博英社, 2005.
- 데이비드 딘 지음, 전승보 옮김, 『미술관 전시, 이론에서 실천까지』, 서울: 학고재, 1998.
- 박신의 외, 『문화예술경영 이론과 실재』, 서울: 생각의 나무, 2002.
- 비토리오 마냐고 람푸냐니·안젤리 작스 엮음, 양효실·최도빈 옮김, 『세계의 미술관』, 서울: 한길사, 2005.
- 사단법인 한국박물관건축학회,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건축 Museum in KOREA 1995~2000』, 서울: 현대건축사, 2000.
- 세계박물관협회 엮음, 하태환 옮김, 『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경영』, 서울: 궁리, 2001.
- 서상우, 『새로운 뮤지엄 건축(NEW MUSEUM ARCHITECTURE)』, 서울: 현대건축사, 2002.
- 서상우, 『뮤지엄 건축 도시속의 박물관과 미술관』, 서울: 살림지식총서, 2005.



- 성완경, 『민중미술 모더니즘 시각문화』, 서울: 열화당, 1999.
- Arthur C. Danto 지음, 이성훈·김광우 옮김, 『예술의 종말 이후』, 서울: 미술문화, 2004.
- 앙드레 말로 지음, 김웅권 옮김, 『상상의 박물관』, 서울: 동문선, 2004.
- 李蘭暎, 改訂新版『博物館學入聞』, 서울: 三和出版社, 2003.
- 이보아,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서울: 역사넷, 2003.
- 이인범, 『미술관 제도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소, 1998.
- Walter, Benjamin,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서울: 민음사, 1983.
- Jacques Lacan 외, 윤난지 역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서울: 눈빛, 2004.
- 존 위크 지음, 장선영 옮김, 『매스 미디어와 미술』, 서울: 시각과 언어, 1998.
- 제주도(사)제주민예총,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도(사)제주민예총, 2001.

국내 논문

- 김미옥, 「인천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을 위한 전략 수립」,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영숙, 「에코뮤지엄(Ecomuseum)개념 도입을 통한 박물관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신숙영,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서의 ‘프로그래밍’의 이론과 실제」,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송은주, 「경기지역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양현미, 「박물관 연구와 박물관 정책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박물관 연구와 정책-」,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유지복, 「경기도립 미술관 환경조경설계」,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현지, 「미술관의 조직과 운영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주성은, 「현대 뮤지엄 이론 연구-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개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채은영, 「마로니에 미술관 활성화 방안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최귀엽, 「도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박물관·미술관 건립에서의 입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연구 보고서

국립현대미술관, 「국군기무사 부지를 활용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선진국을 위한 투자, 미술관정책-미술관진흥정책연구-」,
『국립현대미술관』, 2005.
광주광역시, 「(가칭)광주현대미술관건립기본계획연구」, 『광주광역시』, 2000.
경기도, 「경기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경기도』, 2001.
전라북도, 「전북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전라북도』, 2001.
제주도,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제주도』, 200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동북아시아 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
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
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국외 단행본

Gail Dexter Lord, Barry Lord,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1991.

Dimaggio, Paul J,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Museums*, *Encyclopedia of Aesthetics*, Vol. 3,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정기 간행물

Neil Kotler, “New Ways of Experiencing Culture: the Role of Museums
and Marketing Implications”, *Museum Managements and Curatorship*.

Awoniyi Stephen, “The Contemporary Museum and Leisure: Recreation
As a Museum”, *Museum Managements and Curatorship*.

Mihaly Csikzentmihalyi and Kim Hermanson, “Intrinsic Motivation in
Museums: What Makes Visitors Want to Learn?”, *Museums
News*, May/Jun, 1995.

John H. Falk and Lynn D. Dierking, “The Museum as a Leisure-Time
Experience”, In *The Museum Experience*, Whalesback, 1992.

Marlene Chambers, "Beyond 'Aha!': Motivating Museum visitors", In
What Research Says About Learning in Science Museums,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s, 1990.

Web Site

www.naoshima-is.co.jp

www.moma.pref.kanagawa.jp

www.esplanade.com

www.substation.org

www.gam.go.kr

www.jbartmuse.go.kr

<http://cafe.daum.net/museumstudies>

신문 기사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경기일보



Abstract

A Study of the Construction Planning of Jeju Province Museum of Art -Focusing on Its Problems and Ways of Improvement-

Yang, Mi Gyeong

Major in Art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Fine Art
Hong Ik University

Advisor : Prof. Yoo, Jae Gil

Prof. Lee, In Bum

As one of institutions, museums have diversely changed in the context of society, culture, and history. With the onset of the Louvre, which is the oldest, largest art gallery and museum in the world, works of art have been considered the cultural property of the public from the exclusive possession of the ruling class. With the emergence of the Pompidou Center which has the function of promoting the exchang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museum has been regarded as one of cultural elements.

What has caused the change of functions and roles in art museums are the development of the mass media, advent of the concept of cultural democracy, rapidly increased demands for cultural products and leisure. This social, cultural changes calls for the advent of physically expanded art museums. In this respect, any projects to set up a museum is of great significance.

A high level of expertise is required in the establishment of a museum. Any museum construction project thus has to encompass a wide variety of elements including cultural, historical, environmental, and geopolitical aspects



of a region, the past and present of the conception of museums, and future changes of the function of museums. All these eleme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making a plan for a museum.

This study, taking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planning of the Jeju Province Museum of Art as its reference, is to raise the matter of expertise in the establishment of a museum and to underline the importance of museum constructions.

In its chapter II, first of all, the establishment of a museum system, its process and change of meanings are explored, as the theoretical preposition of the study of a museum planning. From the perspective of new museology, which maintains a critical position against already established museum studies based on the conventional conception of the museum, a new aspect of museum constructions has been researched. Following the fundamental guidance given in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 by Gail Dexter Lord and Barry Lord, all problems in museum constructions and the process of making and executing a plan have been examined.

In the chapter III, focusing primarily on the motive and background of Jeju Province Museum construction and its construction planning, I review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planning. I analyze also expected effects of the museum establishment and its problems based on the museum's characteristics, its location analysis, collections and the BTL system.

In the chapter IV, I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ju Museum construction, comparing the case of Naoshima Contemporary Art Museum in Japan similar to Jeju geographically as an island, the Museum of Modern Art, Kamakura and Hayama similar to Jeju in ways of its construction, the Gyeongnam province Museum of Art, Jeonbuk Province Museum of Art, and Gyeonggi Province Museum of Art as the domestic cases.



The followings ar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Jeju Province Museum of Art construction planning based on the researches mentioned above:

Firstly, higher specialization is required for the museum construction project. In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Province Museum of Art, any approaches to enhance an awareness of this project's importance and meanings through various forums remain insufficient. The process of specifically detailed discussions to define the characteristic of the museum is greatly significant in that it become the framework of all other elements such as scale, facility, budget, organization, exhibition, program, construction, and space.

As the location requirements, the museum's natural and everyday accessibilities are reviewed at the same time and preparing a new site or renovating a historic building is also suggested.

Secondly, the expansion of service by the introduction of the BTL (Build-Transfer-Lease) system is suggested. The objective of this system is to enhance Jeju people's life qua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museum services by the introduction of civilian creativity and specialization. The museum construction can be put ahead before completing an analysis of this BTL system's meaning, possibility, and its limitation. The museum has to be organized to reveal the traits of the BTL system as its exhibition planning and social education programs might be reduced.

Thirdly, the formation of a specialized architectural space is required. Museum space should be organically formed because the expansion of space is continuously demanded. The museum space has to be a place to offer the pleasure and satisfaction of firsthand experiences with artworks, to remain nature-friendly an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enlargement or extension of museum buildings.



Fourthly, it is also suggested that a team for the museum's inauguration exhibition should be organized based on the planning of museum opening. For this, the importance of how to mount an inaugural exhibition program and its appropriateness in terms of its opening schedule are emphasized.

In conclusion, this study puts into consideration the problem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Jeju Province Museum of Art and suggests that its construction should be made based on specialization, underlining its importance. An exquisite local museum cannot be built in a day. From the initial stage to its completion, the highest level of expertise should be engaged in the museum establishment. Incessant changes in museum culture are also sought to.

